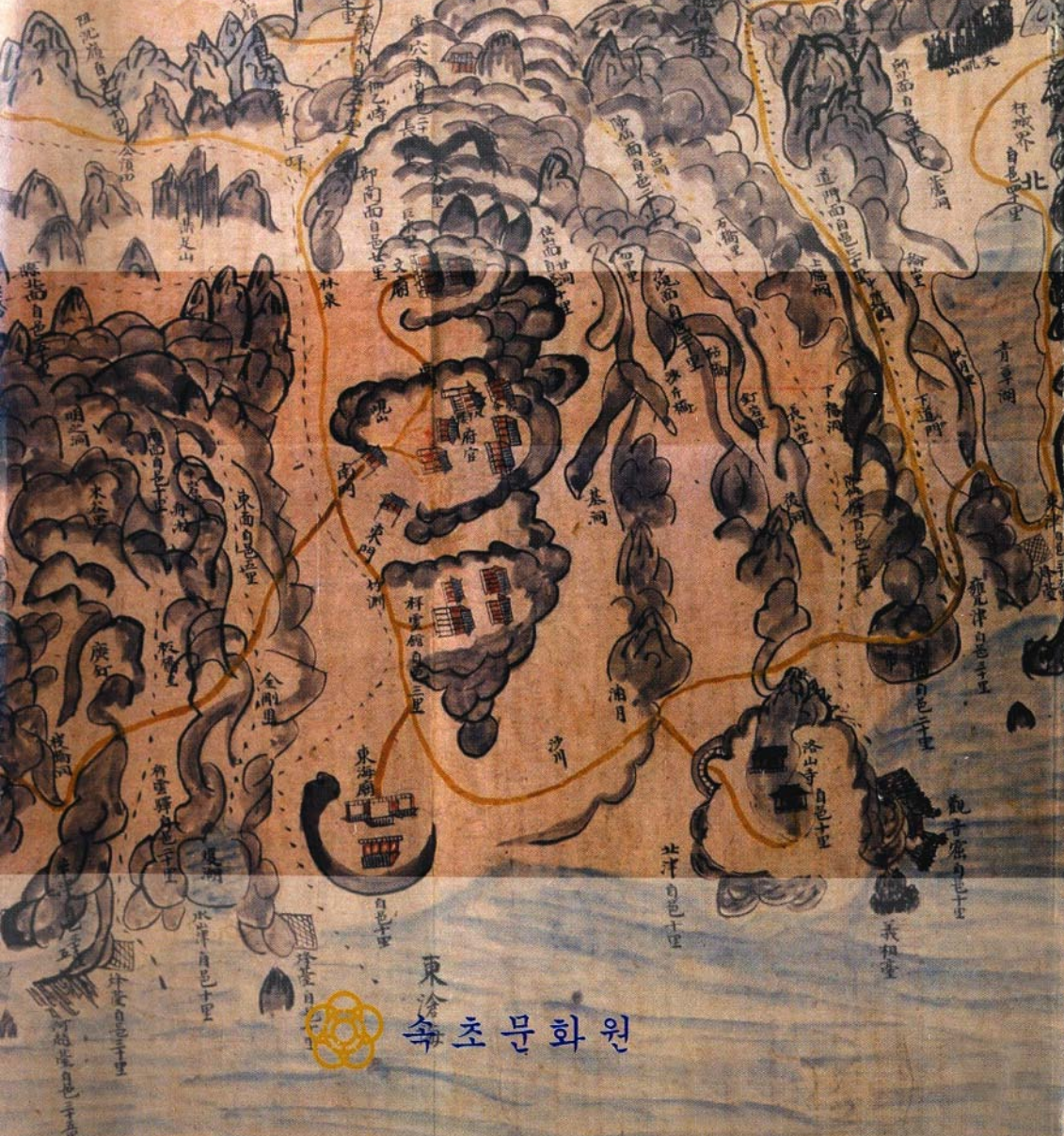


西

靈岳山

옛 文獻 속의 襄陽



東滄 叢 文 化 院



옛 文獻속의 束草

옛 文獻속의 束草

차 례

발간사	최용문(속초문화원장)	5
총론		7
제 1 장 연혁(沿革)		13
제 2 장 산천(山川)		29
1. 산(山)		31
2. 호수(湖水)		56
3. 령(嶺)		67
4. 천(川)		70
제 3 장 지명(地名)		73
1. 방리(坊里)		75
2. 일제시대의 지명		79
제 4 장 호구(戶口)		81
제 5 장 물산(物産)		91
1. 토산물(土産物)		93
2. 진공(進貢)		96
3. 시장(市場)		97
4. 금융조합		97
제 6 장 관방(關防)		99
1. 성(城)		101
2. 진보(鎭堡)		112
3. 이참(里站)		114
4. 봉수(烽燧)		114
5. 교량(橋梁)		119
6. 우편(郵便)		122

제 7 장 고적(古蹟)	123
1. 사찰(寺刹)	125
2. 누대(樓臺)	163
3. 사묘(祠廟)	169
제 8 장 풍속(風俗)	171
1. 풍속(風俗)	173
2. 성씨(姓氏)	175
3. 인물(人物)	176
제 9 장 설화(說話)	177
1. 동자승(童子僧)의 기지(寄智)	179
2. 영산(靈山)	183
3. 목탁바위	183
4. 매미의 낙원	184
5. 신흥사의 유래	185
6. 도문과 신흥사	187
제 10 장 한시(漢詩)	189
1. 영랑호(杆城郡邑誌)	191
2. 영랑호(關東邑誌)	193
3. 금강산 가는 길	195
4. 신흥사(현산지)	197
5. 설악산(동국여지지)	199
부 록 1 옛 文獻	201
부 록 2 옛 文獻속의 地圖	305

발 간 사



속초문화원장 최 용 문

속초문화원은 2001년의 한 해가 속초 역사의 뿌리를 재조명하는 문화의 확립시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향토사료집 “옛 문헌속의 속초”를 발간, 우리 지역의 전통을 비롯한 지명 등 역사를 정리하여 독특한 우리의 향토문화를 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오늘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물결이 정보산업화로 바뀌면서 시대적, 정신적으로 전산화에 얽매어 글을 쓰던 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무자세로 바뀐 이 현실이 어찌면 안타까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지금까지의 가치세계가 흔들리고, 무한 경쟁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전통문화의 빛을 앗아 가는데에 깊은 주의와 인식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옛 문헌속의 속초”를 통해 우리의 뿌리를 찾아 보다 향토애의 의식을 고취하여 나와 내 고장의 발전에 활력소가 된다면 더 없는 보람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만족한 자료 발굴이라 믿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한 대입(代入)이라고도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 원에서는 우리의 아름답고 전통의 향기가 물씬한 문화요소(사료)들을 계속 발굴하고 다듬는데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고귀한 자료들을 모아 한 권의 사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신 본 원의 향토사연구소 위원들과 그밖에 여러모로 관계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총론

속초지역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군에 속해 있었다¹⁾. 따라서 속초 지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한계점이 있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그와 더불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먼 지역에 불과한 곳이었기에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속초지역의 역사연구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뿌리 찾기’가 시급한 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문헌들을 조사하여 차후 연구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료집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명, 민속, 발굴 조사 등 상당히 많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근·현대사 부분의 자료 보강과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재검토 등 필요한 몇 개의 과제 또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연구된 속초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장사동은 간성군에 속한 지역이었다.

속초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청동기 시대부터이다. 물론 양양이나 고성 유적을 통하여 볼 때 연결통로인 속초에도 청동기 시대 이전에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이후 군장국가였던 동예에 속했다가 삼국시대에 들어와 고구려의 영토로 익현현(翼峴縣) 다른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했으며, 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익령(翼嶺)이라 불려졌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으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로 불려졌다.

속초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갑오개혁 이후 양양군으로 고쳐졌다. 오늘날 속초의 토대가 된 것은 일제시대에 들어와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치면서부터이다. 이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외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화 역할을 담당할 상당히 큰 항구였다. 이와 더불어 일제시대 후기로 오면 청초호(靑草湖·쌍성호)를 항구로 개발함에 따라, 그에 인접한 속초리(束草里)가 점점 커져서 1937년에는 도천면(道川面)²⁾사무소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동시에 면(面)이름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어, 속초는 동리 이름이면서 또한 면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그 후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에는 읍(邑),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었으며,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까지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의 속초시에

2) 일제시대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道門面(도문면)과 所川面(소천면)이 합쳐져 도천면이 됨.

이른다.

대략 살펴본 연혁에서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몇 가지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번 사료조사의 큰 쾌거였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대략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초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둘째,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명인 ‘속진리(東津里)’는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인가?

셋째, ‘천후산(天吼山)’은 울산바위와 어떤 관계인가?

넷째, 속초의 인구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언제부터 커지기 시작했는가? 등이다.

속초라는 명칭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되었던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여지도서』의 기록이었다. 영조 때 만들어진 『여지도서』에 의하면 “속초리는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 거리에 있다. 편호 86호이고 인구는 남자 99명, 여자 182명.(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九女一百八十二口)”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료를 확인하던 중 조선 단종 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³⁾』에 “속초포(東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보아 조선 전기에도 속초라는 이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지역향토사가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그 동안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속진리의 위치다. 속진리의

3) 1454년에 정인지 등이 편찬한 사본 8책으로 각 도의 연혁·고적·물산·지세 등을 각 방면에 걸쳐 기술한 문헌.

위치는 “해동지도 양양부”, “양양읍지도” 등의 고지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초에 인구가 몇 명이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속초의 인구는 많지 않았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지금의 속초 지역은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웅진,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구는 천명 이내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자료인 도천면의 「면세일반(1926년)」에는 6,219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청초항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도 인구에 관한 기록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이 철저한 조사가 뒤따른 것이 아니라 앞서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많아 자세한 인구를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속초의 지명에 관하여는 여러 역사가나 향토사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지명총람』이나 「속초의 지명⁴⁾」에는 사라진 지명까지도 적고 있어 상당한 연구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것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자연지형이 변함으로 인해 많은 지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명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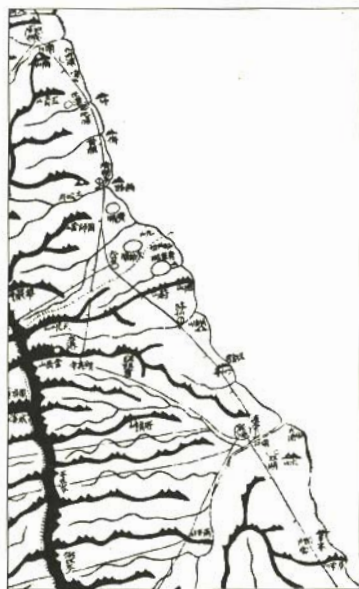
또한 논란이 되고있는 ‘비선대(秘仙臺)’의 존재여부, ‘침산정(浸山亭)’, ‘영랑호의 정자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최근까지 불려진 이름을 되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천(山川)’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옛 지명이 가리키는 곳이 현재의 어디인지 밝히지

4)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2. 20.

못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옛 지명에 있어 가장 큰 의문은 이산(籬山)에 관한 내용이다. 이산과 천후산(天吼山), 울산은 같은 지명이라고 대부분의 책에서 표기하고 있는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울산과 천후산을 다른 곳에 표기하여 놓았다. 또한 지금은 없어진 연수파령, 보현사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편찬 목적은 연구를 위한 자료모음 성격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토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간이 주석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이 자료집 발간과 더불어 속초 지역의 향토사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제 1 장 연 혁(沿革)



제 1 장 연 혁(沿革)⁵⁾

守城郡本高句麗遼城郡景德王改名今杆城縣領縣二童山縣本高句麗僧山縣景德王改名今烈山縣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景德王改名今因之

수성군(守城郡 · 375)은 본래 고구려 수성군(遼城郡 · 376)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간성현(杆城縣 · 377)이다. 영현이 들어있다. 동산현(童山縣 · 378)은 본래 고구려 승산현(僧山縣 · 379)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열산현(烈山縣 · 380)이다. 익령현(翼嶺縣 · 381)은 본래 고구려 익현현(翼峴縣 · 382)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잡지 제35 제4》

5) 속초는 장사동을 제외하곤 양양군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따라서 양양의 연혁을 실는다.

翼峴縣 一云 伊文縣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 · 177)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잡지 제37 제6》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名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襄州防禦使四十四年丁巳以降賊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

부사(府使) 1인.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인데,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 익령(翼嶺)이라 고쳐서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고종(高宗) 8년(남송<南宋> 영종<寧宗> 가정<嘉定> 14년) 신사에 거란 군사를 잘 막았다 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하였으나, 44년(남송 이종<理宗> 보우<寶祐> 6년) 정사에 적에

게 항복한 까닭으로 덕녕감무(德寧監務)⁶⁾로 강등하였고, 원종(元宗) 원년 경신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하였다. 본 조 태조(太祖) 6년 정축에 외향(外鄉)⁷⁾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 계사(癸巳)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 병신(丙申)에 양양으로 고쳤다. 별호는 양산(襄山)이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양양 연혁조》

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景德王改命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使四十一年降爲縣令四十四年以降賊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別號襄山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현종(顯宗) 9년에 현령(縣

6) 덕녕(德寧)은 양양군을 이르는 지명이며, 감무(監務)는 고려시대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의 감독관을 말한다.

7)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로서 목조(穆祖)로 추존된 이안사(李安社, ?~1274)의 외향이다.

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내었다 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1년에 낮추어서 현령(縣令)을 삼고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德寧監務)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다.

《고려사 지리지(高麗史地理志)》

襄陽都護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익령으로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 감무(德寧監務)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4 양양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 감무(德寧監務)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였다. 본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양양 연혁조》

襄陽都護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景德王時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時復折置翼嶺縣高宗八年陞爲襄州以禦丹兵有功陞溪降爲德寧縣高宗四十四年以降賊降元宗初復爲襄州本朝太祖六年陞爲府以上之外鄉陞太宗十三年改爲襄陽都護府掌面

양양은 본래 고구려 익현현인데 다른 말로 이문현이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이 익령으로 고쳐서 수성군이 거느리는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때 익령현으로 나누었고, 고종 8년에는 거란 군사를 잘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로 승격하였으나 고종 44년에 적에게 항복한 까닭으로 덕녕현으로 낮추었다. 원종 초에 양주로 회복되었으며, 본 왕조 태조 6년에 임금의 외향이라 하여 부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3년에 양양도호부로 이름을 고쳤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양양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

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양양부읍지(襄陽府邑誌) 全 연혁조》

襄陽 高句麗翼峴縣 一云伊文 新羅改翼嶺 高麗陞襄州 降德寧縣 復稱襄州 太祖丁丑陞府 上之外鄉 太宗改襄陽 襄山

양양은 고구려 때의 익현현, 다른 말로 이문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는 익령현으로 고쳤고, 고려 때에는 양주로 올렸다가 덕령현으로 낮추었으며, 다시 양주라 일컬었다. 태조 정축년에 부로 올렸다. 임금의 외향이다. 태종 때 양양으로 고쳤다. 양산이라고도 한다.

本伊文縣後改翼峴新羅景德王三十六年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九年置縣令高宗八年陞襄州防禦使以御丹兵有功四十一年降縣令四十四年降德寧監務以降賊元宗元年陞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改都護府十六年改襄陽正宗七年降縣十六年復陞邑號襄山官員都護府使一員

본래 이문현 이었다가 후에 익현이 되었다. 신라 경덕왕 36년에 익령으로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에 현령을 삼고, 고종 8년에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올렸다가 41년에 낮추어서 현령(縣令)을 삼고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는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양양으로 이름을 고쳤다. 정종 7년 현으로 낮추었다가 16년에는 읍으로 승격하였다. 양산이라고도 하며 관원인 도호부사 1인을 두었다.

《대동지지(大東地志) 권16 양양 연혁조》

襄陽本高句麗翼峴一云伊文縣新羅改翼嶺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朝以禦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復以降敵降爲德寧監

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李朝太宗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爲府光海十年改爲縣仁祖元年改爲府高宗三十一年改爲郡併合後因之

양양은 본래 고구려 익현, 다른 말로 이문현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익령으로 고쳐 수성군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현령을 삼고, 조선 고종 때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로 높였다. 이조(李朝) 태종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다가 16년에는 부로 바뀌었다. 광해 10년에 현으로 고쳐졌으며, 인조 원년에는 부로, 고종 31년에는 병합하여 군으로 고쳤다.

《강원도지(江原道誌) 권1 양양 연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관동읍지(關東邑誌) 양양 연혁조》

高句麗時翼峴一云伊文縣新羅.. 以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時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改爲都護府十六年改名

고구려의 익현(翼峴),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

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강원도 양양군읍지(江原道 襄陽郡邑誌) - 언혁조》

襄陽府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水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令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

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강원도 양양군읍지(江原道 襄陽郡邑誌) 2 연혁조》

本高句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守城郡領縣高麗顯宗置縣令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州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爲德寧縣務元宗元年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以上之外鄉陞爲府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今名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이름을 고쳐서 수성군(守城郡)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顯宗) 때 현령(縣令)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元宗) 원년(元年)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높혔다. 본 조 태조(太祖) 6년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太宗) 13년에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관동지(關東誌) 13 양양 연혁조》

本高麗翼峴縣一云伊文縣新羅時改爲水城郡領縣高麗顯宗時置縣
 命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陞爲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
 爲德寧監務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太宗六年以穆祖外鄉陞爲府
 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十六年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亂降號爲
 縣仁祖元年癸亥陞府戊辰以逆亂降號爲縣丁丑陞府

양양은 본래 고구려 익현, 다른 말로 이문현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익령으로 고쳐 수성군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현령을 삼고, 고종(高宗) 8년에 능히 거란(契丹)의 침입을 막아 공이 있다하여 양주 방어사로 올렸다가 44년에는 적(賊)에게 항복하였다 하여 다시 낮추어 덕녕감무로 하였으며, 원종 원년에 지양주사로 높혔다. 본 조 태종 6년에 외향(外鄉)이라 공경하여 부(府)로 승격하고, 태종 13년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다. 16년에는 양양부로 바뀌었다. 광해 무오년 역란에 의해 현으로 낮추었으며, 인조 원년 계해에는 부로 올려졌고, 무진에는 역란에 의해 현으로 되었다가 정축에 부로 올려졌다.

《현산지(峴山誌) 연혁조》

제 2 장 산 천(山川)



제 2 장 산 천(山川)

1. 산(山)

가. 설악산(雪嶽山)

在府西北五十里鎮山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부의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으로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강춘도(江春道) 양양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손상시켰다. 설악산(雪嶽山)에 눈이 겨울처럼 쌓였으므로 초목이 모두 얼어죽었다.⁸⁾

《영조실록 42집 영조13년 4월 20일》

8) 영조 13년(1737년)의 기록.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脉⁹⁾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오십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西北五十里鎮山極高峻仲秋有雪至夏乃消故名峯巒聳列石色皆白俗稱小金剛南孝溫遊山錄金剛山一枚南延二百餘里山形竦峭略如金剛木岳者曰雪岳本朝金時習多住此山 ○ 本朝許穆詩雪岳之山高萬戈懸空積翠連蓬瀛千峯暎雪海日晴縹緗羣帝集玉京

부 서북 오십리에 있는 진산으로 지극히 높고 가파르다. 중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에야 사라지므로 그런 까닭에 설악이라 부른다. 봉우리가 높이 줄지어 솟아 있는데 돌의 빛

9) 脈(맥)의 약자.

깔이 모두 회기에 세속에서는 소금강이라고 불린다. 남효온이 이산에 여행 와서 “금강산 한 줄기가 남쪽으로 이백여리를 뻗어내려 산의 형세가 우뚝 솟고 가파르며, 날카로운 것이 금강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나아가 설악이라고 불렀다.

본 조에 와서 김시습이 자주 이산에 머물렀으며, 본 조에 허목의 시에 이르기를

설악의 높이는 만장이고,

허공에 늘어진 푸른 소나무, 삼신산이 아니던가?

일출로 빛나는 설봉의 눈부심이여,

높고 멀리 수많은 제왕이 가지런히 늘어선 듯 하다.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편 양양 산천조》

自淮陽金岡山來爲江陵五坵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
乃雪至夏而消故名峯巒聳列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양양부읍지 全 산천조》

〔嶽外山歷神興寺內院庵轉向繼祖窟窟在天吼山下遍觀食堂瀑布

설악 외산 신흥사, 내원암을 지나 방향을 바꿔 계조굴을 향하면 굴은 천후산 아래에 있다. 두루 식당폭포(食堂瀑布)를 구경할 수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西北四十里麟蹄界雄盤高大石勢連天峯巒聳列洞府幽深 ○ 神興寺靈穴寺繼祖窟皆在山之東

서북쪽 40리, 인제와 경계를 이룬다. 웅장한 바위가 높고 크다. 돌의 모양이 하늘에 닿아있고 높고 낮은 봉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 마을들이 벌려져 있으며 골짜기가 그윽히 깊다. ○ 신흥사, 영혈사, 계조굴이 모두 산의 동쪽에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垵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也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雪嶽山俗號小金剛在北五十里見麟蹄極高峻仲秋有雪至夏乃消故名峯巒聳列石色皆白如雪高名

북쪽으로 50리에 있으며, 인제가 보이고 지극히 높고 가파르다. 중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에야 사라지므로 그런 까닭에 설악이라 부른다. 봉우리가 높이 줄지어 솟아 있는데 돌의 빛깔이 모두 희기에 세속에서는 소금강이라고 부른다.

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故名

북쪽 50리에 있으며, 매우 높고 험하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렇게 이름지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산천조》

自淮陽金剛山來爲江陵五臺山主脉自官門北距五十里極高峻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

회양 금강산에서부터 강릉 오대산 주맥까지다.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50리 거리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중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산천조》

雪嶽山靈 古有神興僧 採蔬入山方飯之際有一藍縷老嫗前來乞飯僧輒與之口之小項皆噴之僧怒而杖之嫗避去因忽不見僧下山翌日嘔血卽斃以爲山靈所謫云

설악산령 옛날에 신흥사 승려가 있었는데 채소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갔다. 한참 밥을 먹으려 하는데 어떤 남루한 한 노파가 앞에 와서 밥을 구걸하였다. 스님이 생각 없이 그에게 밥을 주었는데 목을 조아리어 모두 토해내니 스님이 노하여 몽둥이를 휘둘렀다. 노파가 피하여 갔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산을 내려간 다음날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으니 사람들이 산신령이 귀양온 것이라고 여겼다더라.

《현산지 산천조》

在郡北二里一名小金剛磅礴高峻地誌云白頭以南雪嶽最高每仲冬¹⁰⁾始雪至夏乃消故名東有國師峰普門庵神興寺繼祖庵西有鳳頂庵寬瀑十二瀑水簾洞萬景臺梨花洞愈弘窟五歲庵永矢庵 ○ 諺傳古有神興僧採蔬入山方飯之際有縷縷一老嫗來前乞飯僧輒與之口之小項皆噴之僧怒而杖之嫗避去人忽不見僧下山翌日嘔血卽斃人以

10) 冬(동)은 秋(추)의 오기 같음.

爲山靈所謫云 ○ 見麟蹄

군 북쪽 2리에 있으며, 일명 소금강이라 한다. 큰바위가 많고 높으며 가파르고 험하다. 지리지에 기록되기를 백두산 이남으로 설악이 가장 높는데 매년 음력 11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지었다. 동쪽에 국사봉, 보문암, 신흥사, 계조암이 있으며, 서쪽에 봉정암, 관폭 12폭, 수렴동, 만경대, 이화동, 유흥굴, 오세암, 영시암이 있다. ○ 세속에 전하길 옛날에 신흥사 승려가 있었는데 채소를 구하러 산으로 들어갔다. 한참 밥을 먹으려 하는데 어떤 남루한 한 노파가 앞에 와서 밥을 구걸하였다. 스님이 생각 없이 그에게 밥을 주었는데 목을 조아리어 모두 토해내니 스님이 노하여 몽둥이를 휘둘렀다. 노파가 피하여 갔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산을 내려간 다음날 피를 토하면서 죽으니 사람들이 산신령이 귀양온 것이라고 여겼다더라. ○ 인제군 편에서도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迺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

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兄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 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 熊只縣 岳髮一云髮岳 于珍也郡 于
火生西良郡

소사(小祀)¹¹⁾ 상악(霜岳) 고성군(高城郡), 설악(雪岳) 수성
군(遼城郡), 화악(花岳) 근평군(斤平郡), 겸악(鉗岳) 칠중성(七
重城), 부아악(負兒岳) 북한산주(北漢山州), 월나악(月奈岳) 월
나군(月奈郡), 무진악(武珍岳) 무진주(武珍州), 서다산(西多山)
백해군(伯海郡)

《삼국사기(三國史記) 雜志 제1 祭祀條》

壇壇 新羅祀典係遼城郡以名山載小祀

신라 제사의 제전은 수성군에서 계속되었다. 명산이기에 소사

11) 삼국시대에는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대사, 중사, 소사를 지냈다. 소사의 명산대천에는 설악산이 들어있다.

를 행했다.

《대동지지 간성 단유조》

小祀 霜岳 高城郡 今高城 雪嶽 迺城郡

소사(小祀) 상악(霜岳) 고성군(高城郡) 지금의 고성, 설악
수성군(迺城郡)

《증보문헌 권61 禮考 十七》

나. 성황산(城隍山)

在府北二十五里

부 북쪽 25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自雪嶽北麓來東之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설악 북쪽 산기슭부터 동쪽 해안까지 뻗어있고,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北二十五里

부 북쪽 25리에 있다.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편 양양 산천조》

北二十五里

북쪽 25리에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自雪嶽北麓來東之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설악 북쪽 산기슭부터 동쪽 해안까지 뻗어있고,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自雪嶽北麓來東之海岸自官門北距二十五里

설악 북쪽 산기슭부터 동쪽 해안까지 뻗어있고,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在郡北三里

군의 북쪽 3리에 있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다. 이산(籬山)

在府北六十三里 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부의 북쪽 63리, 쌍성호 서쪽은 곧 큰 령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옛부터 이런 이름이 지어졌으며, 세속에서 말하길 울산이라 하기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亦稱天吼山

설악 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암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北六十三里 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부의 북쪽 63리, 쌍성호 서쪽은 곧 큰 령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옛부터 이런 이름이 지어졌으며, 세속에서 말하길 울산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편 양양 산천조》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岩亦稱¹²⁾天吼山

설악 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암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양양부읍지 소 산천조》

自雪嶽東麓來爲青草湖西南岸有奇峯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亦天吼山

설악 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산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12) 稱(칭)의 약자.

在北六十三里

북쪽 63리에 있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1》

自雪嶽東麓來爲靑草湖西南岸有奇峰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亦稱天吼山

설악동쪽 산기슭에서 시작하여 청초호 서남안에 이른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울산 또는 천후산이라 칭한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산천조》

在郡北六里雙成湖西卽大嶺東支也有奇峰縱橫如設藩籬故名俗云蔚山

군의 북쪽 6리, 쌍성호 서쪽은 곧 큰 령의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아서 이름이 지어졌으며 세속에서 말하길 울산이라 하기도 한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라. 천후산(天吼山)

在郡南七十里

군 남쪽 70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在郡南六十里西接彌時嶺南接襄陽新興寺¹³⁾主脉雪嶽山自麟蹄界
入來

군 남쪽 60리에 있다. 서쪽으로 미시령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
양양신흥사에 접해 있다. 설악산의 주맥으로 인제의 경계로부터
떨어왔다.

《여지도서 간성군 산천조》

西北四十五里杆城界

서북쪽 45리 간성 경계.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13) 新興寺(신흥사)로 이름을 바꾼 것은 최근이다. 神興寺의 오기가 아닐까
판단된다.

南七十五里襄陽界

남쪽 75리 양양 경계.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在郡南七十里山多石巖風自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臺有石狀似佛像故名其側大石如困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苫累¹⁴⁾此石示適以有峙糧仍以却敵故名之曰

군의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바위가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양과 간성 사이에 잦고 큰바람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 산에는 성인대가 있고 그 석상의 모양이 불상과 비슷하여 고로 이름을 붙였다.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쌀 곳간(困廩=군름)과 같은데 항간에서 부르기를 화암이라고 전해

14) 수성지에는 고점라(藁苫裸)로 되어 있음.

오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 방수¹⁵⁾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돌이 마치 거적 대기를 쌓아놓은 것으로 보였다. 이 돌은 보여지기가 때마침 양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동읍지 간성 산수조》

在郡南七十里山多石穴風自中出謂之天吼世傳襄杆之間多大風以此云山有聖人臺有石狀似佛像故名其側大石如困廩俗呼禾巖世傳昔有防戍於此而故以藁苫累此石示適以有峙糧仍以却敵故名之云耳

군의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바위구멍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天吼)’라고 전해오고 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양양과 간성 사이에 잣고 큰바람이 이것 때문이라고 하더라. 산에는 성인대가 있고 그 석상의 모양이 불상과 비슷하여 고로 이름을 붙였다. 그 옆에는 큰 바위가 쌀곳간(困廩=균름)과 같은데 향간에서 부르기를 화암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이 곳에 방수가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돌

15) 방수(防戍)-수자리 살며 국경을 지킴.

이 마치 거적 대기를 쌓아놓은 것으로 보였다. 이 돌은 보여지기가 때마침 양식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적이 퇴각했다는 고로 그 이름을 화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관동지 13 간성 산수조》

在南七十里

남쪽 70리에 있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在郡北五里雪嶽之東北石峯高張撐插半空中多竅穴大風將起山自先鳴故名尹判書淳篆刻山名于山下岩

군의 북쪽 5리 설악산 동북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높게 펼쳐

져 있고 버팀목처럼 박혀있다. 반은 공중에 떠있고 뚫린 구멍이 많다. 큰바람이 장차 불려고 하면 산이 먼저 울기 때문에 이름하게 되었다. 판서를 지낸 윤순이 산의 이름을 산 아래에 있는 바위에 새겼다.¹⁶⁾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蔚山 北三十里在青草湖西奇峯縱橫如設藩籬

울산 북쪽 30리 청초호 서쪽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16) 윤순이 계조암 입구에 계조굴이라고 쓴 사실을 말함.

마. 덕산(德山)

在府 北三十六里

부의 북쪽 36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北三十五里

북쪽 35리에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2. 호수(湖水)

가. 영랑호(永郎湖)

在郡南五十里周三十餘里汀回渚曲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永浪湖¹⁷⁾ 在郡南五十里周二十餘諸山水流入湖溢則直破海口

17) 永郎湖(영랑호)의 오기 같음.

영랑호 군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20여 리며, 모든 산의 물이 호로 유입되어 가득 차 곧바로 바다입구로 흘러 보낸다.

《여지도서 간성 산천조》

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巖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

군의 남쪽 55리에 있는데 둘레가 30여 리이다. 암석이 기묘하고 괴이하며, 호수의 작은 봉(峯)이 있는데 반은 호수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南五十里周三十里汀回諸曲岩石奇怪湖東小峯半入湖心有古亭基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在郡南六里餘汀回渚曲岩石奇怪湖東小峰半入湖心有古亭基是永郎仙徒遊賞之地

고을 남쪽 6여 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간 곳에 옛 정자터가 있다. 여기가 영랑(永郎)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在南五十里 周三十餘里 汀回渚曲巖石奇怪 湖東小峯半入湖心
是永郎仙徒遊賞地云

남쪽 50리에 있다. 둘레가 30여 리쯤인데, 물가는 구불구불 굽어있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동쪽에 작은 봉우리가 절반쯤 호수 속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가 영랑 선도들이 놀며 감상하던 곳이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나. 청초호(靑草湖)

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 ○ 秘仙臺在湖之東北石峯峭拔其上可坐

북쪽 40리,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다. 둘레는 수십 리이다. ○ 비선대는 호수의 동북쪽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에 있는데 그 위는 가히 앉을 수 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산수조》

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氷合有千頃犁破之 是夜湖上民牛皆喘汗郡人謂之龍耕以此占歲豐凶一名變成湖

군의 북쪽 삼십리에 있다. 주위 둘레는 수십 리이다. 매년 겨울 얼음이 밭을 갈아엎은 형상으로 언다. 이날 밤에 호수의 상류사람과 소들이 모두 땀흘리고 애썼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용경¹⁸⁾이라 말했다. 이로써 짐을 보아 그 해의 풍흉을 점쳤다. 일명 쌍성호이다.

《현산지 수원(水源)조》

在郡北三里周回數里每冬氷合有千頃劈破之狀是夜湖上民牛皆汗喘人謂之龍耕以此占歲之豐凶

군의 북쪽 삼 리에 있다. 주위 둘레는 수리다. 매년 겨울 얼음

18) 전설에 의하면 청초호는 겨울에 호가 어는데 얼음의 누워있는 방향을 보고 그 다음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즉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눈을 갈아 놓은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이 눈을 갈아 놓았다고 해서 용경 또는 용갈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밭을 갈아엮은 형상으로 언다. 이날 밤에 호수의 상류사람과 소들이 모두 땀흘리고 애썼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용경이라 말했다. 이로써 점을 보아 그 해의 풍흉을 짐쳤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다. 쌍성호(雙成湖)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부의 북쪽 40리, 간성군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¹⁹⁾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19) 조선시대 무관직의 하나. 만호·천호·백호 등은 본래 그 管領(관령)하는 民戶(민호)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차차 민호의 수와는 상관없이 鎭將(진장)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으며, 조선 초기에도 만호·부만호·천호·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여지도서 양양 산천조》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周數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부의 북쪽 40리에 있다. 간성군과 경계에 있으며, 둘레가 수십 리다. 호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동국여지지 권7 양양 산천조》

府四十里杆城界周數十里形勝優於永郎湖

부의 북쪽 40리 되는 간성군과의 경계에 있다. 호수의 주위가 수십 리나 되며, 뛰어난 경치가 영랑호보다 더 좋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산천조》

在郡北四里周二里餘湖之形勝優於永郎浦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군 북쪽 4리에 있다. 둘레가 2여 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포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양양부읍지 숲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今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自官門北距四十里周二十里湖之形勝優於永郎湖昔置萬戶營泊兵船廢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호수의 경치가 영랑호보다 훌륭하다. 예전에는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13 양양 산천조》

在北四十里周二十里有萬戶營泊兵船今廢

군 북쪽 40리에 있다. 둘레가 20리이며, 만호영을 설치하여 병선을 정박하였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 31 輿地考 五》

3. 령(嶺)

가. 미시령(彌時嶺)

彌時坡嶺 在郡西南八十里許有路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陋復開此路

미시파령 고을 서남쪽 80리에 있다. 길이 있었으나 오래 전에 폐하여 다니지 않았는데, 성종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간성 산천조》

在郡南六十里

군남쪽 60리에 있다.

《여지도서 간성 관애조》

彌時坡嶺 在郡南八十里許旧有往路今廢不行 成宗二十四年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故復開此路襄杆兩邑官路

미시파령 군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다니던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 다니지 않는다. 성종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었다. 양양, 간성 양읍의 관로이다.

《관동읍지 양양 산천조》

彌時坡嶺 在郡南八十里許旧有往路今廢不行

미시파령 군의 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왕래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여 다니지 않는다.

《관동지 13 간성 산천조》

在西南八十里見麟蹄右蔚山見總說 本朝 成宗朝以襄陽府所冬羅嶺險阨復開此路俗稱麗水坡嶺

서남쪽 80리에 있다. 인제가 보이며, 우측에 울산이 보인다고 모두들 말한다. 본 조 성종 때 양양부 소동라령이 험하고 좁은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고 여수파령이라고 칭한다.

《증보문헌비고 권23 輿地考 2》

나. 연수파령(連水坡嶺)

西南八十里舊廢不行 成宗二十四年復開此路 ○ 華巖寺在嶺之東環擁素嶂俯臨滄海寺之南嶺有聖人臺巨岩平廣可坐百餘人南挹天吼東俯永郎青草兩湖

서남쪽 80리에 있다. 예전에 폐하여 다니지 않았으나 성종24년 다시 이 길을 열었다. ○ 화암사는 령의 동쪽에 있으며 둘레는 하얀 바위산을 끼고있다. 창해사의 남쪽이고 령에는 성인대라는 거암이 있는데 평평하고 넓기가 가히 백여 명이 앉을 수 있다. 남쪽으로 천 후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영랑, 청초 양 호수를 굽어본다.

《대동지지 권16 간성 산수조》

4. 천(川)

가. 도문천(道門川)

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爲沕湍川有橋

근원은 내원동에서 시작하며, 식당천과 합류하여 물치천을 이루고 다리가 있다.

《현산지 산천조》

道門水 源出內院洞與食堂川合流爲沕湍川

근원은 내원동에서 시작하며, 식당천과 합류하여 물치천을 이룬다.

《강원도지 권1 양양 산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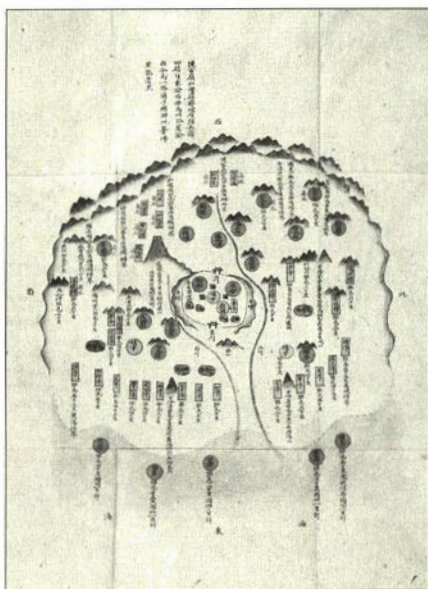
나. 사야지천(沙也只川)

在郡南五十里

군의 남쪽 50리에 있다.

《관동지 13 간성 산천조》

제 3 장 지 명(地名)



제 3 장 지 명(地名)

1. 방 리(坊里)

가. 도문면(道門面)

道門 西初二十 終三十 所川 西初二十五 終三十五

도문 서 시작 20, 끝 30. 소천 서 시작 25, 끝 35.

《대동지지 권16 양양 방리조》

上道門里北距三十里 下道門里北距二十五里 大浦里北距三十里
瓮津北距三十里合人戶一百五十八戶 神興寺在其西 所川面 論
山里北距三十五里扶月里北距三十五里東草里北距三十五里東津
北距三十五里合人戶二百四戶

상도문리,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하도문리,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대포리,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웅진리,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합인호 158호. 신흥사, 그 서쪽에 있다. 소천면 논산리,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부월리,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속초리,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속진, 북쪽으로 35리 떨어져 있다. 합인호 204호.

《강원도 양양군읍지 2 방리조》

道天面 獐項里, 上道門里, 下道門里. 中道門里, 大浦里, 内沕溜里, 蘆里, 論山里, 扶月里, 束草里, 外甕峙里

도천면 장항리, 상도문리, 하도문리, 중도문리, 대포리, 내물치리, 노리,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외옹치리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강원도 양양군》

나. 토성면(土城面)

獐川里 自官南距六十五里 沙也只津里 自官南距五十五里
沙也只里 自官南距五十里

장천리 관문남쪽으로부터 65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진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5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

《관동읍지 간성 방리조》

土城面 土城里 自官南距三十里
東老洞里 自官南距四十里 獐川里 自官南距六十里 沙也只津里
自官南距五十里 沙也只里 自官南距五十里
較正 東老洞里 土城里 沙也只津里 今 沙津里 沙也只里

토성면 토성리 관문남쪽으로부터 30리 떨어져 있다. 동노동

리 관문남쪽으로부터 40리 떨어져 있다. 장천리 관문남쪽으로부터 60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진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 사야지리 관문남쪽으로부터 50리 떨어져 있다. 교정, 동노동리 토성리 사야지진리 지금의 사진리 사야지리.

《간성읍지 방리조》

章川里, 沙津里

장천리, 사진리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강원도 양양군》

2. 일제시대의 지명²⁰⁾

종 별	지 명	언 문	위 치	비 고
寺刹名	神興寺	신흥사	도문면 토왕성리	
渡津名	靑草湖	속식기목	소천면 속초리	
浦口名	束津	속식	소천면 속초리	
城堡名	權金城	권금성	도문면 토왕성리	
	土旺城	토왕성	도문면 토왕성리	
嶺峙峴名	馬騰峯	늘목영	도문면 토왕성리	
	天吼峙	ㅎ물지	"	
	牧牛峙	먹우지	도문면 상도문리	
	沙泥峙	싸리지	"	
	德峙	떡고기	도문면 중도문리	
	長嗎峙	장명고기	도문면 하도문리	
	南燕峙	나무고기	도문면 하도문리	
山谷名	靑垓山	청덕산	소천면 청대리	
	天吼山	ㅎ우지	도문면 토왕성리	
	達摩山	달마산	도문면 토왕성리	
	中旺山	중왕산	도문면 상도문리	
	靑垓山	청덕산	도문면 중도문리	
里洞名	論山里	론미	소천면 논산리	미?
	蘆洞	갈골	소천면 로동	
	束草里	속식	소천면 속초리	
	扶月里	비달리	소천면 부월리	
	外瓮津里	싸독지	소천면 외옹진리	
	丁庫里	정고리	도문면 정고리	
	土旺城里	토왕성리	도문면 토왕성리	
	獐項里	로루목이	도문면 장항리	
	上道門里	붓도문	도문면 상도문리	웃도문?
	中道門里	중도문	도문면 중도문리	
	下道門里	하도문	도문면 하도문리	
	內沕淄里	안물치	도문면 내물치리	
	大浦里	큰독지	도문면 대포리	
面名	所川面	소천면	양양군 소천면	
	道門面	도문면	양양군 도문면	

20) 조선지리지자료(양양군편) 참조.

종 별	지 명	언 문	위 치	비 고
野坪名	所也坪	왓들우	소천면 논산리	
	何須遠坪	하수원드루	도문면	
	三城坪	삼생이드루	도문면 상도문리	
	陷甯坪	함정드루	도문면 중도문리	
	鐵坪	쇠관이드루	도문면 대포리	
江川溪澗名	蘆洞川	갈골너	소천면 노동	
	商山川	상산너	도문면 상도문리	
	雙川	쌍천	도문면 중도문리	
酒幕名	盤扶坪酒幕	반부둑쥬막	소천면 반부평리	
土産名	麻布	베	소천면	
	麻布	베	도문면	
	白紙	종우	도문면	
	土器	질그릇	도문면	
堤堰沢名	大浦里後堤堰	너더리방축	도문면	
	上沢	웃보	소천면	
	中沢	중보	소천면	
	末沢	쓰보	소천면	
	新沢	신보	소천면	
古蹟名所	飛仙垤	비선딤	도문면 신흥사지내	
	臥仙垤	와선딤	"	
	繼祖窟	계조굴	"	
古碑名	柳勿齋碑	유물지비	도문면내 물치리	
	神興寺事蹟碑	비석	도문면	신흥사 사적을 건립한 비

제 4 장 호 구(戶口)



제 4 장 호 구 (戶口)

道川面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三口女三十三口 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四十四口女八十二口 勿淄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十八男十九口女三十三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四男三十五口女六十九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七十八男一百七口女一百三十一口 神興寺自官門西北間距四十里編戶二十僧四十九口

도천면

-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20 남33구 여33구
-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5 남44구 여82구
- 물치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편호18 남19구 여33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4 남35구 여69구
- 웅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78 남107구 여131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서북 사이 40리에 있다. 편호20 승49구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男三十九口女五十八口
扶月浦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十八男四十八口女三十八口
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八十六男九十九女一百八十二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八男七十九口女九十六口

소천면

-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20 남39구 여58구
- 부월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18 남48구 여38구
- 속초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86 남99구 여182구
-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8 남79구 여96구

《여지도서 양양 坊里조》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二十二男四十四口女四十四口
扶月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十七男二十五口女二十五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二十七男四十六口女四十六口

소천면

-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22 남44구 여44구
- 부월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17 남25구 여25구

-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7 남46구 여46구

《양양부읍지 숲 방리조》

道川面 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二男四十口女三十九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二男四十五口女四十五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三男三十三口女三十四口
 神興寺自官門北距四十里僧四十口

도천면

- 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2 남40구 여39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2 남45구 여45구
- 용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3 남33구 여34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북쪽 40리에 있다. 승40구

《양양부읍지 숲 방리조》

道川面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六十一男九十五口女一

百四十五口 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四男三十三口女五十八口 勿湍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二十一男二十五口女四十一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三男二十四口女四十二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五十三口女七十四口 神興寺自官門北距五十里編戶二十一僧三十八口

도천면

-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61 남95구 여145구
-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4 남33구 여58구
- 물치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편호21 남25구 여41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3 남24구 여42구
- 웅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5 남53구 여74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북쪽 50리에 있다. 편호21 승38구

《관동읍지 양양 방리조》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三十八男五十一口女五十四口 扶月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二男七十二口女一百五十口 東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四十七男九十九女一百十一口 東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一男七十口女一百六十口

소천면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38 남51구 여54구
 부월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2 남72구 여105구
 속초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47 남99구 여111구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1 남70구 여106구

《관동읍지 양양 방리조》

道門面 上道門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六十一男九十五口女一百四十五口
 下道門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四男三十三口女五十八口
 勿湍里自官門北距二十里編戶二十一男二十五口女四十一口
 大浦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二十三男二十四口女四十二口
 瓮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五男五十三口女七十四口
 神興寺自官門北距五十里編戶二十一僧三十八口

도문면

- 상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61 남95구 여145구
- 하도문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4 남33구 여58구
- 물치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0리에 있다. 편호21 남25구 여41구
- 대포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23 남24구 여42구
- 웅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25리에 있다. 편호35 남53구 여74구
- 신흥사, 관문으로부터 북쪽 50리에 있다. 편호21 승38구

《관동지 13 양양 방리조》

所川面 論山里自官門北距三十里編戶三十八男五十一口女五十四口 扶月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二男七十二口女一百五口 束草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四十七男九十九女一百十一口 束津里自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五十一男七十九口女一百六口

소천면

논산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0리에 있다. 편호38 남51구 여54구
부월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2 남72구 여105구
속초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47 남99구 여111구
속진리, 관문으로부터 북쪽 35리에 있다. 편호51 남79구 여106구

《관동지 13 양양 방리조》

道川面 在府北三十里 元戶一百八十五戶 男二百三十七口 女三百四十七口

부의 북쪽 삼십 리에 있다. 원호 185호 남237구 여347구.

《현산지 방리조》

所川面 在府北三十五里
元戶一百八十二戶 男二百六十五口 女三百七十四口

부의 북쪽 35리에 있다. 원호182호 남265구 여374구.

《현산지 방리조》

(襄陽) 雪嶽尋常高等小學校 在道川面大浦里
大浦尋常小學校 在道川面大浦里

양양

설악심상고등소학교 도천면 대포리에 있다.

대포심상소학교 도천면 대포리에 있다.

《강원도지 권3 양양 방리조》

제 5 장 물 산(物産)



제 5 장 물 산(物産)

1. 토산물(土産物)²¹⁾

芎 鐵 出西禪寺東峯下 竹箭 出竹島 海松子 五味子 紫草 人蔘
 地黃 茯苓 蜂蜜 白花蛇 海衣 萹 鮫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鱧魚 銀口魚 黃魚 魴魚 古刀魚 廣魚 鱧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茸

모시·철(鐵)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밑에서 산출된다.
 죽전(竹箭-대나무 화살) 죽도에서 산출된다. 해송자·오미자·
 지치(紫草)·인삼·지황·복령·별꽃·백화사(산무애뱀, 독사
 의 일종)·김·미역·전복·홍합·문어·대구어·송어·연
 어·도루묵·황어·망어·고등어·광어·농어·숭어·쌍족어(
 雙足魚)·해삼·송이버섯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토산조》

21) 토산(土産)은 그 지방의 특산품을 말한다.

芎 鐵 竹簡 海松子 人蔘 五味子 紫草 地黃 茯苓 蜂蜜 白花蛇
海衣 早藿 生鰓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鱧魚 銀口魚 黃魚 古
刀魚 廣魚 鱧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藟

모시 · 철 · 대살 · 잣 · 인삼 · 오미자 · 지치(紫草) · 지황 · 복
령 · 벌꿀 · 백화사 · 김(海衣) · 올미역 · 전복 · 홍합 · 문어 · 대
구어 · 송어 · 연어 · 도루묵 · 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송어
· 쌍족어 · 해삼 · 송이버섯

《여지도서 양양 물산조》

麻 鐵 箭竹 海松子 五味子 人蔘 茯苓 紫草 蜂蜜 白花蛇 海
衣 霍鰓 紅蛤 文魚 大口魚 松魚 鱧魚 銀口魚 黃魚 古刀魚 廣
魚 鱧魚 秀魚 雙足魚 海蔘 松藟 石藟 鹽 ○ 黃腸封山-二處
高麗文宗十七年三司秦翼嶺縣產黃金請附貢籍

삼베 · 철 · 대나무화살 · 잣 · 오미자 · 인삼 · 복령 · 지치(紫
草) · 벌꿀 · 백화사 · 김 · 전복 · 홍합 · 문어 · 대구어 · 송어 · 연
어 · 도루묵 · 황어 · 고등어 · 광어 · 농어 · 송어 · 쌍족어 · 해삼

· 송이버섯 · 돌버섯 · 소금 ○ 황장봉산-2곳, 고려 문종 17년 삼사²²⁾는 익령현에서 산출되는 황금을 진상품으로 공적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토산조》

虎皮 熊皮 獐皮 獬皮 黃毛 豬毛 狸皮 獮皮 海獺 水獺 海驢
 海豚 紫蟹 紅蛤 海蔘 生鰓 大口魚 魴魚 加魚 廣魚 文魚 沙魚
 洪魚 松魚 連魚 黃魚 銀口魚 鱸魚 鯉魚 藿鹽 茶 楮 竹 蓴
 梨 栗 柿 杏 桃 銀杏 樓桃 胡桃 木果 榛子 楸子 蓮子 栢子
 五味子 五加皮 芝草 紅花 薯蕷 松蕈 晚耳 石耳

호피 · 웅피 · 장피 · 돈피 · 황모 · 저모 · 이피 · 단피(산돼지
 피) · 해달 · 수달 · 해양 · 해돈 · 자해(게) · 홍합 · 해삼 · 생전복
 · 대구어 · 방어 · 가어 · 광어 · 문어 · 사어 · 홍어 · 송어 · 연어
 · 황어 · 도루묵 · 농어 · 잉어 · 미역 · 소금 · 차 · 닥나무 · 대나
 무 · 순채 · 배 · 밤 · 감 · 살구 · 복숭아 · 은행 · 복숭아 · 호도 ·
 목과 · 개암나무 · 대추 · 연밥 · 잣 · 오미자 · 오가피 · 지초 · 홍
 화(잇꽃) · 서여 · 송이버섯 · 만이 · 석이

《현산지 물산조》

22) 삼사(三司)는 고려시대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 회계를 맡아보던 관청이다.

2. 진공(進貢)

人蔘 白茯苓 白扁豆 赤茯苓 茅香 五味子 芫蔚子 何首烏 木通 白芍藥 羌活 當歸 川芎 蔓荊子 枳實 防風 茯苓 獨活 牡丹皮 連翹 蟬殼 苧蓂仁 葛花 柴胡 金銀花 茵陳 藥皮 麻黃 白芨 山藥 鴛粟殼 羚羊角 獮 葛根 文魚 大口魚 松魚 鱧魚 銀口魚 廣魚 沙魚 鱧魚卵 海蔘 紅蛤 生鱸 大口卵 早藟 生梨

인삼·백복령(흰빛갈의 복령)·백편두·적복령(빛이 붉은 복령, 건위제 강심제로 씀)·모향·오미자·충위자·하수오(새박 뿌리)·목통(으름덩굴 줄기와 뿌리를 말림)·백작약(다년생초)·강활·당귀·천궁(궁궁이)·만형자(순비기나무의 열매)·지실(떨어 말린 어린 탕자)·방풍·복신(복령)·독활(땅두릅의 뿌리)·목단피·연교(개나리열매)·선각(매미허물)·고루인·갈화(취꽃)·시호(다년생초, 해열제로 씀)·금은화(인동덩굴의 꽃)·인진(사철쑥)·벽피(황경나무껍질)·마황(늘푸른 떨기나무)·백급(대왕풀)·산약(마의 뿌리)·앵소각·영양각·산돼지·갈근(취뿌리)·문어·대구어·송어·연어·도루묵·광어·사어·연어알·해삼·홍합·생전복·대구알·올미역(일찍 따는 미역)·배

3. 시장(市場)

束草市 在束草面三日七日開市

속초시 속초면에 있으며 삼일, 칠일에 시장을 연다.

《강원도지 권3 양양》

4. 금융조합

水産組合束草支部 在道川面 束草漁業組合 在道川面 農村振興
會婦人會 俱在各面

수산조합속초지부, 도천면에 있다. 속초어업조합, 도천면에 있
다. 농촌진흥회부인회, 각 면에 함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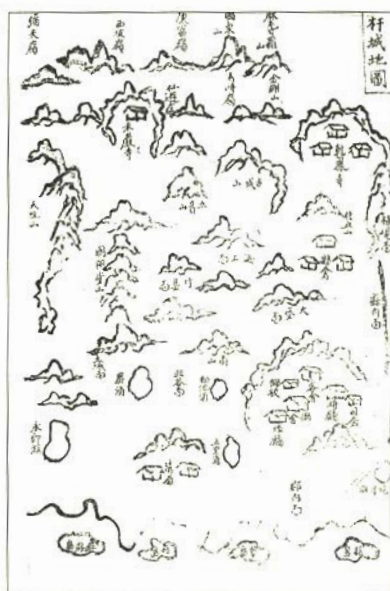
《강원도지 권3 양양》

大浦金融組合 在道川面

대포금융조합, 도천면에 있다.

《강원도지 권3 양양》

제 6 장 관 방(關防)



제 6 장 관 방(關防)

1. 성(城)

가. 권금성(權金城)

在雪岳頂石築周衛一千一百十二尺高四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
二家避亂于此故名洛山寺記所云天兵闖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
守禦疑卽此

설악산 정상의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낙산
사 기록에 몽고 침입으로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고적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絶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
權金二姓避亂于故名

부의 북쪽 50리, 설악산 안에 있다. 형세가 매우 높고 가파르다.
석축의 둘레는 1천여 척이며, 허물어진 여장(女牆)이 있다. 속설에
전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여지도서 양양 고적조》

在雪岳頂石築周一千一百十二尺今半頽落俗傳昔有權金二家避難
于此故名之

설악산 정상 of 석성으로 둘레가 1,112척이고, 높이는 4척이다.
지금은 반쯤 남았을 뿐이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동국여지지 권7 고적조》

廢山城 雪岳 在府北三十里 鎮山城在山頂 石築昔有權金二家
避亂于此

폐산성 부 북쪽 30리, 진산 설악에 있다. 성은 산 정상에 석성으로 되어있다. 예전에 권씨와 김씨 두 집안이 이곳으로 피난했다.

《연려실기술 별집 제17권 변어전고》

雪岳山古城 在山頂稱權金城一云土王城 周二千一百十二尺

설악산 고성 설악산 정상에 있는데 권금성이라 칭한다. 다른 이름으로 토왕성이라 한다. 둘레는 2천 1백 12척이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絶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
權金二姓避亂千故名

부에서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산 가운데 깊고 높은 곳에
석축으로 1천여 척으로 쌓여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속설에 전
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관동읍지 양양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絶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
權金兩姓避亂千此故名

부에서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산 가운데 깊고 높은 곳에
석축으로 1천여 척으로 쌓여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속설에 전
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성지조》

在雪岳之東神興寺南突兀縹緲不待秋衛登臨睡望氣像宏豁山腰有石築城俗傳權金二家避亂于此故名按益壯記癸丑丹兵闌入我疆是州於雪岳山築城守禦疑指此

설악의 동쪽 신흥사의 남쪽에 있다. 갑자기 우뚝 솟아 높고 먼 모양이다.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올라 눈 가늘게 뜨고 바라보면 기상이 넓고 크다. 산허리에는 돌로 쌓은 성이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권씨, 김씨 두 집이 이곳으로 피난한 까닭으로 권금성이라 이름하였다. 익장기에 의하면 계축년 거란병이 우리 강토를 침범함에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 성을 쌓고 수어하였다고 했는데 이곳이 아닐까 한다.

《현산지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勢甚高絕石築周千餘尺廢堞尚在俗傳昔有權金二姓避亂于故名

부에서 북쪽 50리, 설악산에 있다. 산 가운데 깊고 높은 곳에

석축으로 1천여 척으로 쌓여져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속설에 전해 오기를 권, 김 2성을 가진 이가 피난 온 고로 이름을 붙였다.

《강원도읍지 양양 성지조》

在北五十里石築周二千一百十貳尺今廢

부의 북쪽 50리에 있으며, 돌로 쌓았다. 둘레는 2천 1백 12척이며 지금은 폐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28 輿地考 十六 關防조》

在府北 五十里 石築 周 二千一百十四尺 今廢

부 북쪽 50리에 있다. 석성으로 둘레가 2,114척이나 지금은 없다.

《여지고 양양 성지조》

城址 道川面獐項里 私有 神興寺ノ 南方十數町ノ 岩壁上ニアリ
土王城及權金城址, 一部石築ニシテ 周圍各約二千間, 不完全

성지 도천면 장항리에 있다. 사유. 신흥사 남방 수십 정의 암벽 위에 있다. 토왕성 및 권금성지는 일부 석축으로 되어 주위 각 약 이천 칸이나 불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나. 토왕성(土王城)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 石築遺跡尙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여지도서 양양 고적조》

雪岳山古城 在山頂 稱權金城一云 土王城 周二千一百十二尺

설악산고성 산 정상에 있다. 다르게 권금성이라 칭한다. 토왕성은 둘레가 2천 1백 12척이다.

《대동지지 권16 양양 성지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 石築遺跡尚存俗傳 古有土姓王築此云
有瀑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직
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관동읍지 양양 고적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東石築遺跡尚存俗傳古有土姓王築此云有瀑
布數千丈飛下石間壁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석성으로 쌓은 흔적이 아
직도 남아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예전에 토씨 성을 가진 왕이 이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 폭포가 있는데 수천 길이나 돌벽 사이로
날아 떨어진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권2 고적조》

在府北四十里 雪岳之中東 瀑布掛流數百丈 氣勢甚壯 有石築世傳土姓王所造云.

부 북쪽 4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폭포가 수백 길이나 걸려 있는데 기세가 심히 웅장하다. 석성이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토씨 성을 가진 왕이 만들었다고 전한다.

《현산지 고적조》

在府北 五十里 石築 邑誌 土民王姓人築遺址尚存

부 북쪽 50리에 있다. 석성이다. 읍지에 토씨 성을 가진 왕과 백성들이 쌓았다고 한다. 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다. 기타 성지

城址 道川面大浦里 土木局所管 大浦里部落ノ 北數町ノ 山頂ニ 在リ 周圍約七十間 土築, 不完全

성지 도천면 대포리. 토목국소관. 대포리 부락의 북수정 산 정상에 있고, 주위 칠십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불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城址 道川面東草里 私有 東草里部落ノ 西方ニ 近接セル 小丘上ニアリ 周圍約三百間土築, 稍完全

성지 도천면 속초리. 사유. 속초리 부락의 서쪽방향으로 근접한 작은 언덕 위에 있다. 주위 약 삼백 칸이며, 흙으로 쌓았다. 거의 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2. 진·보(鎭堡)

· · · 太祖六年丁丑始置鎭二鎭無留防軍有事則以侍衛牌充之
兵馬都節制使置司 江陵府都觀察使無之水軍萬戶守禦處六越松浦
在平海東舡一艘軍七十束草浦在襄陽北舡三艘軍二百單十· · ·

태조 6년 정축에 비로소 진(鎭) 둘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留防軍)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패로 충당한다.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의 영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都觀察使)가 겸한다. 수군 만호 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平海)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單) 10명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권153 진보조》

沕溜津 在府北二十里 束草津 在府北三十里 德山津 在府北二十五里

물치진 부 북쪽 20리에 있다. 속초진 부 북쪽 30리에 있다.
덕산진 부 북쪽 25리에 있다.

《현산지 진보조》

沕淄津 束草津 在郡北

물치진, 속초진, 군 북쪽에 있다.

《강원도지 1 양양 진보조》

海津 較正 沙也只津里 今沙津

해진 교정, 사야지진리 지금의 사진.

《간성읍지 진보조》

3. 이참(里站)²³⁾

沕淄○ 二十里 물치○ 이십리
德山○ 二十五里 덕산○ 이십오리
乘阜○ 三十里 울부○ 삼십리
束津地境○ 三十五里 속진지경○ 삼십오리

《현산지 이참조》

4. 봉수(烽燧)

德山烽燧 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덕산봉수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양양 봉수조》

23) 이참(里站)은 역마을의 의미이다. 물치 등은 역이 없던 곳이지만 여행자들이 숙박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 같다.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여지도서 양양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양양부읍지 숲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里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관동읍지 양양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부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관동지 13 양양 봉수조》

德山烽燧 郡北三十五里

군 북쪽 35리에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1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二十五里北應杆城竹島南應水山

북쪽 25리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간성 죽도와 마주하고, 남쪽으로는 수산과 마주한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봉수조》

德山烽燧 在府北十里甕津之東

부 북쪽 10리, 응진의 동쪽에 있다.

《현산지 봉수조》

烽燧址 道川面外甕峙里 土木局所管 外甕峙里部落ノ 北東約
百間ノ 海岸半島峰筋ニ 在リ 周圍約二十間ノ石積ノ 周二 半
圓形ノ 土壘アリ 稍完全

봉수지 도천면 외옹치리. 토목국소관. 외옹치리 부락의 북동
쪽 약 백칸의 해안반도 봉근에 있다. 주위 약 20칸의 석축으로
주변에 반원형의 토루가 있으며, 거의 완전하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5. 교 량(橋梁)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물치천교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여지도서 양양 교량조》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양양부읍지 순 교량조》

120 옛 文獻속의 束草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읍지 양양 교량조》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관동지 13 양양 교량조》

勿淄川橋 自官門北距二十五里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25리 떨어져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교량조》

沙也只川橋 在郡南五十里

사야지천교 군 남쪽 50리에 있다.

《여지도서 간성 교량조》

6. 우 편(郵便)

大浦郵便所 在道川面同上 沕湍郵便所 在道川面同上

대포우편소, 도천면에 있으며 위와 같다.(서울과 양양간 2일내지 3일)

물치우편소, 도천면에 있으며 위와 같다.

《강원도지 3 양양》

제 7 장 고 적(古蹟)



제 7 장 고 적(古蹟)

1. 사찰(寺刹)

가. 신흥사(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여지도서 양양 사찰조》

양양 신흥사 용암대사비명²⁴⁾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有明朝鮮國龍巖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
李福源撰

資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姜世晃書
夫抱幽憂疾久謝筆硯 有浮屠弘愆者爲師乞銘 守東郭經歲不去祈
叩益堅 余始而疑卒而歎曰彼雖異吾道 而能竭其道之忠於身去之
後如此 殆有不蘄然而然者存焉 是足以銘矣 按其狀 師法名體照
號龍巖 本鄕姓長城士族 幼失兩親與其兄北遊 兄歸而獨寓南漢
隨釋稔長老 入雪山祝髮受戒於白蓮堂智欽大師 後遇日庵法師益
肆力於內外典轉參南北諸宗 而歸日庵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號
自此卓錫豎拂施教日廣 蓋於清虛爲七世孫云晚年謝遣門徒 一日
弟子洪波往省之師疾病 索筆書偈 曰與我有親 親 何時更 有親
親親返前昔在今 又無因我 今又得在前聖是吾親 今朝大笑去 楓
嶽萬峰濱乃浴身更衣 越三日示寂 卽己亥十二月二十一日壬戌也
壽六十七法臘五十一 門徒等建浮圖於內院之東寶藏舍利 師喜施
予 有心計自童歲解屬辭有詩文若干篇傳於其徒 余於少時游雪嶽
意有高禪逸士棲寄於巖洞松桂之間而未之見也 今聞師住此山
四十年竟以樂終其得於耳謨目營而融於心者必有神解妙證之
可以嚙惺人性靈喜師之遇真境而恨余之無夙因也 銘曰 我不
識師 銘奚以爲 見師之偈 如真見師 東有雪山 桑海其隣 銘師
於是 是亦夙因 崇禎紀元後三己酉五月 日立

24) 용암대사비와 대원대사비는 본 연구소 이기영 위원의 해석을 실었다. 기존의 참고자료가 없고, 현재 쓰지 않는 한자가 많아 해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분적으로 모르는 글자가 몇 자 있긴 하나 지역 불교사를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유명 조선국 용암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龍巖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경연사감춘추관사이며 세자의 스승인 이복원이 짓고 자헌대부로 전에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던 강세황은 쓴다.

노부가 울우병이 오래되어 글을 안 쓴지 오래되었는데 홍민이라는 중이 선사를 위하여 명을 지어주기를 청하여 동곽(東郭)을 지키며, 해가 지나도 가지 않고 기원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였다. 내가 처음에는 마칠 것을 의심했으나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쪽이 비록 내 도(道)와는 다르나 능히 그 도(道)가 몸에 충만하기를 다할 수 있으니 선사가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명을 지을만하다 그 행장을 살펴보면 선사의 법명(法名)은 체조(體照)이고 호(號)는 용암(龍巖)이다. 본래 정씨(鄭氏)성으로 장성(長城)의 사족(士族)이었다. 어려서 양친(兩親)을 잃고 그 형과 함께 북쪽으로 유람(遊覽)왔다가 형은 돌아갔으나 홀로 남한 석임장로에게 일년간 의탁하였다.

설악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백련당 지흠대사(白蓮堂 智欽大師)에게 계(戒)를 받았다. 후에 일암법사(日庵法師)를 만나 더욱 불경(佛經) 및 기타 전적(典籍)을 공부하였으며, 남북제종(南北諸宗)의 전적(典籍)들도 공부하였다. 일암(日庵)으로 돌아와 내원(內院)에 거할 때 스승이 법호(法號)를 주었다. 이로부터 석장(錫杖)을 세우고 님음을 완성해 가르침

을 배푸는 것이 날로 넓어졌다.

대개 청허(淸虛)가 칠세손(七世孫)이 된다고 이른다. 만년(晩年)에 문도 들을 사절하여 보냈다. 하루는 제자 홍파왕(洪波往)이 선사를 보살렸는데 선사가 병이 위중할 때 붓을 찾아 계(偈)를 짓기를 나와 친함이 있는데 친함은 어느 때 바뀔가? 친했던 것은 예전에 것이 돌아온 것이니 지금(只今)은 또한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얻어진 것이니 성(聖) 이것이야말로 나의 친함이다. 오늘 아침 크게 웃으며 가리라.

만봉(萬峰)에 단풍이 들러 할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지 삼일만에 입적하였으니 곧 개해 십이월 이십일일 임술(壬戌)이었다. 세수가 육십 칠세이고 출가한지 오십 일년이었다. 문도(門徒)들이 내원(內院)의 동쪽에 부도를 세우고 사리(舍利)를 보장하였다.

선사는 남에게 배풀기를 좋아했으며, 또한 심계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났다. 문사와 시문(詩文) 약간편이 그 문도(門徒)에게 전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설악산에 노닐면서 고선일사(高禪逸士)들이 석굴 송계(石窟 松桂)지간에 머물러 사는 것에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선사가 이산에 사십 년을 머무르다가 마침내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을 들었다. 선사는 귀에 들은 것을 눈으로 실천할 것을 도모했으며, 마음에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불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이니 인성의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사가 참된 경지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오래된 인연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다.

그 명(銘)에 이르기를

나는 선사를 모르는데 명을 어떻게 지으리오.
 선사의 계를 보니 선사를 씬는 것과 같아
 동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상전벽해는 그 이웃에 있네.
 이에 선사의 명을 지으니
 이 또한 오래된 인연이리라.

崇禎紀元後三 己酉년五月에 세우다

《양양신흥사대원대사비명(襄陽神興寺大圓大師碑銘)》

有明朝鮮國大圓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直提學俞彥鎬撰并篆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曹允亨書雪
 嶽名于域中古清寒子暨三淵翁遺躅尚在而淵翁所嘗與爲淨社之游
 如隴道人雄大師其人皆靈淑所鍾超上津筏其道殊而其致一後之尚
 賢者奚方內外之間焉余嘗居白城之墅有比丘道圓者自雪嶽走千里
 爲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高足大圓大師也嘻卽其淵源之所自可而
 知師矣師法名無外號大圓堂本文姓高麗江城君益漸之後父壽遠母
 金氏夢月而娠既生肌膚淨潔不藉洗浴爲兒嬉戲皆作佛事見者異之
 甫成童當戍中國難奔赴南漢守堞有勞難己賞射獲多當豆遂力辭而
 歸忽自念人之寂於物者以有靈明也其可緣形役性喪吾神珠乎旣而
 父母擇對將誣日送之乃中夜脫身走入雪嶽問道日庵大師大師卽賢

道人也賢與語奇之傳其心印蘇其上有雪巖月渚楓潭鞭羊以接乎清
 虛於師六世也師夙有慧識於內外典深獨得以開衆覺中年苦眼眚於
 是面壁心灰回光內照行益苦道益尊蔚然爲一代業林之宗今上辛亥
 七月乙酉寂于雪嶽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衆曰我將行矣
 其勿以彌文累我旣焚化有光燭天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爲
 浮圖以藏之云余仍誥之曰圓爾道以無爲爲宗顯揚褒大何有於師哉
 圓曰以爲無也則三千大界便作空華以爲有也則眞妄皆境隨所在而
 致力亦人之道也圓頽古而氣清徧習竺典專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
 山願見其木者歟遂爲之銘曰

赴難逃賞清虛之風兮
 因性早覺月渚之通兮
 五祖傳印臨濟之宗兮
 由戎入空水止鑑空兮
 雪山嵯峨寶珠玲瓏兮
 於千萬年皎皎靡終兮
 崇禎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大圓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승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로 전에 행판중추부
 사(行判中樞府事)를 지냈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
 인 유언호(兪彦鎬)가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판(工曹參判 兼 同知義禁

府事 五衛都摠府 副摠冠)인 조운형(曹允亨)이 쓰다.

설악산은 나라에서 유명하다. 옛날 청한자(淸寒子)와 삼연옹(三淵翁)이 남긴 자취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옹이 함께 했던 정사(淨社)의 교유(交遊)로서 색도인(蹟道人)과 웅대사(雄大師) 같은 사람은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모여 상무(上茂)를 초월한 분들이니 그 도(道)는 달랐으나 그 귀취점은 하나였다. 후세에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는 사람이면 무엇 때문에 방내(方內)니 방외(方外)니 하는 차별을 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백성(白城)의 별장에 거(居)할 때 비구인 도원(道圓)이라는 자가 설악으로부터 천 리를 달려와 선사의 명(銘)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 선사가 누구인가 물으니 곧 현도인(賢道人)의 제자 대원대사(大圓大師)였다. 아! 그 연원(淵源)이 그러하니 선사를 알만하다.

선사의 범명(法名)은 무외(無外)이고 호(號)는 대원당(大圓堂)이다. 본래(本來) 문씨(文氏) 성(姓)으로 고려(高麗) 강성군(江城君) 익점(益漸)의 후예(後裔)이다. 아버지는 수원(壽遠)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며, 태몽(胎夢)에 달을 보고 임신(姙娠)한 후 아이를 낳았는데 피부가 정결하여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아이 때 놀이를 하는데 모두가 불사(佛事)와 관계된 것이어서 보는 이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소년 때인 무신년(戊申年)에 국난을 당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여 성(城)을 지켰는데 공이 있어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사양하고 돌아와 홀연히 사람이 사물에 적(寂)할 수 있는 것은 영명(靈明)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이 육체적 생활(肉體的 生活)의 노예(奴隸)가 되어 사역(使役) 당하는 일은 자신의 신주(神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악산(雪嶽山)에 들어가 일암대사(日庵大師)를 물어 찾았는데 대사(大師)가 곧 현도인(賢道人)이었다. 현인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눴던 후 그에게 심인(心印)을 전해주었다.

그 위에는 설암(雪巖), 월저(月渚), 풍담(楓潭), 편양(鞭羊)이 있고 청허(淸虛)에 이르기까지 육세(六世)가 된다. 선사는 일찍이 불경(佛經) 및 기타 서적(書籍)에 깊은 지식이 있었으며, 깊이 있게 홀로 대중을 깨우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년(中年)에는 안질(眼疾)로 고생하였으며, 이에 면벽(面壁)수련에 들어가 마음이 다하도록 수련한 결과 회광 내조(回光 內照)에 이르러 수행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나 도가 더욱 드높아져서 울연(蔚然)히 일대(一代)의 업(業)을 이루었다. 신해(辛亥)년 칠월(七月) 을유(乙酉)에 설악(雪嶽)의 극락암(極樂庵)에서 입적(入寂)하셨다. 세수(世壽)가 78(七十八)이요, 출가(出家)한지 60년(六十年)이었다. 입적(入寂)하기 전에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는 장차 입적(入寂)할 것이다.

글을 지어 나를 읽매이지 말라, 이미 다비식을 치를 때 환희 비추는 빛이 하늘로 이어져 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문승(門僧) 혜원(慧遠)이 영주일과(靈珠一顆)를 얻어 부도를 세우고 그것을 보장하고 이르기를 내가 거듭 밝히지만 선사의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기본을 삼는 것이니 선사에게 세상에 명예가 드러난다든가 칭찬 받는 것이 어찌 큰 것이 되겠는가? 선사가 말하기를 삼천 세계(三千世界)라는 것은 편히 지어낸 공상으로 없는 것이고, 진실과 허망한 것 모든 경우는 있는 곳에 따를 뿐이니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道)이다. 선사의 모습은 고품스럽고 기는 맑으며 두루 학습하고 경전을 독실히 공부하였다.

하는 일마다 마음을 다하셨고 예전에 그 산을 보지 못하

며,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하여 명(銘)을 짓노라.

어려움에 이르고 상을 피한 것은 청허(淸虛)의 품이며,
 인성(因性)을 일찍 깨달은 것은 월저(月渚)와 통한다.
 오조(五祖)에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성취함의 으뜸이며,
 마음으로 심복 시킴은 명경지수 같은 거울이다.
 설산(雪山)은 우뚝 솟고 보주(寶珠)의 영롱(玲瓏)함이며,
 천만년 후에도 고결함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崇禎紀元後三 壬子년 十一月에 세우다.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在府北五 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
 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관동읍지 양양 사찰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관동지 13 양양 사찰조》

郡 北五十里 雪岳山中

군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1 사찰조》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
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
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강원도 양양군읍지 2 사찰조》

在府北五十里雪岳之東崇禎甲申以禪定寺移創今上丙子監司韓光
筆設置禪教都僧統丁丑府使任公布教以關東緇營四字刻搨寺門壬
午監司李公最中革罷甲申初設三寶

부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승정 갑신²⁵⁾에 선정사를
옮겨지었다. 지금 임금 병자년에 감사 한광필이 선교도 승통을
설치하였다. 정축년에 부사 임포교가 관동치영이라는 4자를 새겨
절 문에 걸었다. 임오년에 감사 이희중이 혁파하고, 갑신년 초에
3보를 설치했다.

《현산지 사찰조》

25) 인조 22년(1644)을 말한다.

在府北五十里雪岳山中 法堂六間 板閣三間 普濟樓七間 寮舍四間 房四十間

부 북쪽 50리, 설악산중에 있다. 법당 6칸, 판각 3칸, 보제루 7칸, 요사채 4칸, 승방 40칸.

《강원도읍지 양양 사찰조》

在道川面雪岳山 新羅眞德王壬子慈藏律師創建稱香城寺

도천면 설악산에 있다. 신라 진덕여왕 임자년(652)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강원도지 권3 양양 사찰조》

朝鮮 仁祖 二十二年(甲申) 寺僧靈瑞, 蓮玉, 惠元 등이 禪定寺를 古址의 下十里 址에 重建하고 神興寺라 改名하고 事蹟碑를 立하다.

조선 인조 22년(갑신)에 사승 영서, 연옥, 혜원 등이 선정사를 원 터의 10리 아래에 중건하고, 신흥사라 개명하여 사적비를 세웠다.

《신흥사 사적》

朝鮮 仁祖 二十五年(丁亥) 寺僧 靈瑞, 蓮玉, 惠元이 大雄殿을 創建하다.

조선 인조 25년(정해)에 사승 영서, 연옥, 혜원이 대웅전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顯宗 二年(辛丑) 海藏殿을 創하고 法華經, 中禮文, 結手文, 請文等의 板本을 藏하다.

조선 현종 2년(신축)에 해장전을 창건하고,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다.

《신흥사 사적》

朝鮮 肅宗 四十一年(乙未) 說禪堂이 火하다.

조선 숙종 41년(을미)에 설선당이 불탔다.

《신흥사 사적》

朝鮮 肅宗 四十三年(丁酉) 寺僧 就眞, 益成 等이 說禪堂을 重建하다.

조선 숙종 43년(정유)에 사승인 취진, 익성 등이 설선당을 중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英宗 十三年(丁巳) 冥府殿을 創建하고 地藏菩薩像을 塑成하다.

조선 영종 13년(정사)에 명부전을 창건하고, 지장보살상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

《신흥사 사적》

朝鮮 英宗 三十七年(辛巳) 寺僧 弘微, 弘運 등이 大雄殿의 石階를 築하다.

조선 영종 37년(신사)에 사승 홍미, 홍운 등이 대웅전 계단을 쌓았다.

《신흥사 사적》

朝鮮 純祖 元年(申酉) 寺僧 碧波暢悟 등이 龍船殿을 創建하고 列聖朝의 位牌를 奉安하다.

조선 순조 원년(신유)에 사승 벽파, 창오 등이 용선전을 창건하고, 열성조(역대 왕들의 조정) 위패를 봉안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純祖 十三年(癸酉) 寺僧 周雲, 喆修, 潤贊 등이 不二門과 斷俗門을 建하다.

조선 순조 13년(계유)에 사승인 주운, 철수, 윤찬 등이 불이문과 단속문을 세웠다.

《신흥사 사적》

朝鮮 純祖 二十一年(辛巳) 寺僧 巨寬, 近旻, 芙聰, 勝琦, 暢悟 등이 極樂寶殿을 重修하다.

조선 순조 21년(신사)에 사승인 거관, 근민, 부총, 승기, 창오 등이 극락보전을 중수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哲宗 九年(戊午) 碧河, 明成 等이 十六羅漢像을 九月山 貝葉寺로부터 海藏殿에 移安하고 海藏殿의 經板을 大雄殿에 移安하고 海藏殿을 應眞殿이라 改額하고 小香閣을 建하다.

조선 철종 9년(무오)에 벽하, 명성 등이 16나한상을 구월산 패엽사로부터 해장전에 이안하고, 해장전의 경판은 대웅전으로 옮기고, 해장전을 응진전이라고 현판을 바꾸고, 소향각을 세웠다.

《신흥사 사적》

大韓 降熙六年(壬子) 乾鳳寺의 末寺가되다.

대한 강희 6년(임자) 건봉사의 말사가 되었다.

《신흥사 사적》

나. 내원암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여지도서 양양부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관동읍지 양양 사찰조》

144 옛 文獻속의 束草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관동지 13 양양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권2 사찰조》

在天吼山下 今上丁未山入幸稔重修

천후산 아래에 있다. 지금의 왕 정미년에 행임이 중수했다.²⁶⁾

《현산지 사찰조》

在神興寺北十間

신흥사 북쪽에 있고, 10칸이다.

《강원도읍지 양양 사찰조》

神興寺山內 新羅眞德女王任子慈藏律師初建能仁菴 李朝仁祖甲申用 菴大師重建改稱內院菴

26) 내원암은 신라 진덕여왕 6년(壬子年, 653)에 자장율사가 향성사의 창건과 함께 암자를 세워 능인암이라 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여러 차례 중건되었다. 이 기록은 정조 11년(1787)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신흥사에 소속되어 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능인암을 처음 만들고, 조선 인조 갑신년에 용암대사가 중건하고, 내원암이라 바꾸었다.

《강원도지 권3 양양 사찰조》

朝鮮 仁祖 二十二年(甲申) 龍岩大師 能仁庵을 古址에 重建하고 內院庵이라 改稱하다.

조선 인조 22년(갑신)에 용암대사가 능인암 옛 터에 중건하고, 내원암이라 바꾸었다.

《신흥사 사적》

朝鮮 哲宗 十一年(庚申) 內院庵이 火하니 慧峰이 重建하다.

조선 철종 11년(경신)에 내원암이 불탔으나 해봉 스님이 중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二年(壬午) 勁峯이 內院庵의 獨成殿을 建하고 山神幀을 造成하다.

조선 고종 22년(임오)에 경봉이 내원암에 독성전을 건립하고, 산신탕(화)를 조성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二年(乙酉)에 內院庵이 火하다.

조선 고종 22년(을유)에 내원암이 불탔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八年(辛卯) 內院庵의 後佛幘七星幘神將幘을 造成하다.

조선 고종 28년(신묘)에 내원암에 후불탱, 칠성탱, 신장탱을 조성하였다.

《신흥사 사적》

다. 향성사(香城寺)

在府西四十里 雪岳之東 移爲禪定寺

부 서쪽 40리, 설악산 동쪽에 있다. 선정사로 옮겼다.

《현산지 사찰조》

新羅 眞德女王六年(壬子) 때 慈藏律師가 雪岳山の 東에 香城寺를 創하다. 慈藏이 九層石塔을 造하야 佛舍利를 奉安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 때 자장율사가 설악산 동쪽에 향성사를 창건하였다. 자장율사가 9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하였다.

《신흥사기(神興寺記)중 일부》

新羅 孝昭王7년(戊戌)에 香城寺가 火했다.

신라 효소왕 7년에 향성사가 불탔다.

《신흥사 사적》

朝鮮 宣祖 二十五年(壬辰) 兵燹으로 因하여 九層塔이 破壞되다.

조선 선조 25년(임진)에 병화로 인하여 9층 석탑이 무너졌다.

《신흥사 사적》

寺址 道川面獐項里 私有 獐項里部落ノ 西方約三百間ニアリ
香城寺址, 新羅哀莊王時代ノ 建設ニシテ 現存神興寺ノ 舊基
ナリト 云フ 三重ノ 塔一基アルノミ

사지 도천면 장항리. 사유. 장항리 부락의 서방 약 삼백 칸에 있는 향성사지. 신라 애장왕 시대에 건설해서 현존하는 신흥사의 옛 터라고 한다. 3층의 탑 1기가 있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소화17년(1942), 조선총독부》

라. 보현사(普賢寺)

在天吼山 今廢

천후산에 있으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13 간성 사찰조》

마. 계조굴(繼祖窟), 계조암(繼祖庵)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고, 담 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가 떨어졌다.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의 신흥사 및 계조굴의 거암이 모두 붕괴되었다.

《속중실록 38집 양양 사찰조》

在府東北五十里天吼山下 窟勢嶮衍 中有僧舍 因石爲屋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여지도서 양양부 고적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 窟勢豁飭 中有僧舍 因石爲屋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관동읍지 양양 고적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 窟勢豁飭 中有僧舍 因石爲屋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고 안에 절이 있는데 돌로 지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고적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豁豁如屋子樣世傳繼祖禪師修道處
屈之南盤石上有石一人動之有微動萬人動之動不加焉名以動石窟
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

부의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어 마치 집과 같다. 세상에 전하기를 계조 선사가 수도하던 곳이라 한다. 남쪽에 돌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나, 만 사람이 움직이나 변함이 없다 이름하여 동석이라 한다. 계조굴 3자는 판서 윤순이 쓴 것이다.

《현산지 사찰조》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窟勢豁豁中有僧寺因石爲屋此乃窟也

부 북쪽 50리, 천후산 아래에 있다. 굴세가 깊는데 안에 돌로 된 절이 있는데 이것이 곧 계조굴이다.

《강원도읍지 양양 고적조》

在神興寺山内新羅眞德女王壬子慈藏律師所創建

신흥사에 딸려 있다. 신라 진덕여왕 임자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강원도지 권3 사찰조》

新羅 眞德女王 六年(壬子) 慈藏律師가 繼祖庵을 創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에 자장율사가 계조암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朝鮮 高宗 二十七年(庚寅) 應化大師 繼祖庵의 三聖閣을 創하다.

조선 고종 27년(경인)에 응화 대사가 계조암의 삼성각을 지었다.

《신홍사 사적》

大韓 降熙 二年(戊申) 東庵이 繼祖庵을 丹靨하고 東果 후불
점을 조성하다.

대한 강희 2년(무신)에 동암이 계조굴을 단회하고, 동과가 후
불탱을 조성하였다.

《신홍사 사적》

바. 능인암(能仁庵)

新羅 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律師가 繼祖庵과 能仁庵을 創하다.

신라 진덕여왕 6년(임자)에 자장율사가 계조암과 능인암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新羅 孝昭王 七年(戊戌) 能仁庵이 火하다.

신라 효소왕 7년(무술)에 능인암이 불탔다.

《신흥사 사적》

사. 선정사(禪定寺)

舊在 今內院之基 崇禎甲申 以爲神興寺

옛날에 지금 내원암 자리에 있었다. 승정(인조 22년) 갑신년 이후 신흥사이다.

《현산지 사찰조》

新羅 孝昭王十年 辛丑에 義湘組師가 香城寺를 能仁庵址에 重建하고 禪定寺라 改稱하다. 義湘이 彌陀像觀音像大勢至像을 造成하다.

신라 효소왕 10년(신축)에 의상 조사가 향성사를 능인암 옛 터에 증건하고, 선정사라 개칭하였다. 의상조사는 아미타상, 관음상, 대세지상을 선정사에 조성하다.

《신흥사 사적》

朝鮮 仁祖 20년(壬午)에 禪定寺가 火하다.

조선 인조 20년(임오)에 선정사가 불탔다.

《신흥사 사적》

아. 소림암(小林菴)

在神興寺東八間

신흥사 동쪽에 있으며 8칸이다.

《여지도서 양양 사찰조》

160 옛 文獻속의 東草

在神興東八間

신흥사 동쪽에 있으며 8칸이다.

《관동지 13 양양 사찰조》

今廢

지금 없다.

《관동읍지 양양 사찰조》

在達摩峰下今上甲戌山人冲鏡創之李公壽觀題樓柱曰寺創紅羅運
訖年獨擎中華大明天若教錢牧²⁷⁾聞茲寺何羨蘇仙赤壁船

달마봉 아래에 있다. 지금의 왕 갑술년에 승려 충경이 그것을
창건하였다.²⁸⁾ 이수관이 누(樓)의 기둥에 제목하여 말하길

절은 국운이 다하는 때에 창건되어,

홀로 中華의 명나라를 받들었네.

만약 전겸익(錢謙益)으로 하여금 이 절에 대해 듣게 했다면

어찌 소동파의 적벽선을 부러워했겠는가?

《현산지 사찰조》

在神興寺東八間

신흥사 동쪽에 있으며 8칸이다.

《강원도읍지 양양 사찰조》

27) 錢牧(전목), 전겸익을 말함. 명(明)말·청(淸)초의 문인. 호는 牧齋(목제)
28) 금상(今上) 갑술(甲戌)년에 창건되었다라는 기록은 잘못된 듯하다.
현산지의 하한선은 1800년(정조 24년)인데, 그 이후 순조대에 증보되어
갔다고 볼 때 순조 14년(1814)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아있는 탑의 양식
이 고려시대 것임을 보면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더 신
빙성이 있다.

新羅 文武王 二年(壬戌) 寺僧 冲鏡이 少林庵을 創하다.

신라 문무왕 2년(임술)에 사승인 충경이 소림암을 창건하였다.

《신흥사 사적》

少林庵(廢庵) 新羅 文武王 二年(壬戌)에 創하나 廢한 年代는 未詳하니라.

소림암(폐암), 신라 문무왕 2년(임술)에 창건하였으나 폐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신흥사 사적》

2. 누대(樓臺)

가. 비선대(秘仙臺)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上有獨松凝株望之如畫其上
可坐有徑如線通陸 海惡則不得渡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가파르게 빼
어났고, 위에 노송 두어 그루가 있어서 바라보면 그림 같다. 그
위에는 앉을 만하며, 실같은 길이 육지와 통하는데 바다 물결이
사나와지면 건널 수 없다.

《동국여지지 권7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

데 가히 불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읍지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則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 데 가히 불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관동지 13 양양 누대조》

在府北五十里雙成湖東有石峰峭拔可觀舊有亭今廢

부의 북쪽 50리. 쌍성호 동쪽에 가파르고 빼어난 석봉이 있는 데 가히 불만하다. 예전에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하였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누대조》

郡北五十里

군의 북쪽 50리에 있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누대조》

在府北五十里 海上巖石 平寬 可坐數十人

부의 북쪽 50리에 있다. 해상암석이 평평하고 넓어 가히 수십
인이 앉을 만하다.

《현산지 누대조》

나. 비선대(飛仙臺) 와 와선대(臥仙臺)

飛仙臺 在府西五十里食堂洞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聳森束如劔戟樣

설악산 동쪽 식당동에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대의 북쪽 벽은 돌이 높게 솟아올라 뾰뾰하게 묶여있는 것이 칼과 창같이 삼엄한 기세였다.

《여지도서 양양부 고적조》

飛仙臺 在府西五十里食堂洞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臺之北壁石嶂突聳森束如劔戟樣

설악산 동쪽 식당동에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대의 북쪽 벽은 돌이 높게 솟아올라 뾰뾰하게 묶여있는 것이 칼과 창같이 삼엄한 기세였다.

《관동읍지 양양군 고적조》

臥仙臺 在雪嶽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爲瀑或停而爲潭

설악산 동쪽 식당동 가운데 있다. 하얀 돌이 넓게 펼쳐져 맑은 물이 가운데로 흐르면서 혹은 퍼져서 폭포가 되고, 혹은 머물러 소가 되었다.

《현산지 고적조》

飛仙臺 在臥仙臺之上川石視臥仙尤勝而北崖石嶂之突慙松束令人驚吁亦蓬萊之所無三淵金公昌翁所謂東方川石中上乘者臺號三字大刻尹判書淳筆

비선대 와선대 위에 있다. 산수가 와선대보다 뛰어나다. 북쪽 절벽의 돌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고, 소나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 감탄하게 하며, 봉래(금강산)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이라고 감탄케 했다. 삼연 김창흡은 소위 동방의 산수 중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대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판서 윤순의 글씨다.

《현산지 고적조》

다. 침산정(浸山亭)

在府北四十里 青草湖之東岸 陶庵李尙書絳 嘗遊山到此 數日誦
詠 見峴叟李參議彙晉 約以臨湖起亭 以作晚年 逍遙之所 而預
作名曰浸山 以雪岳峯巖 蘸倒湖心 而然也 今廢

부의 북쪽 40리, 청초호 동쪽 기슭에 있다. 도암 상서 이재가 일찍이 산을 유람하다 이곳에 도착하여 수일동안 시를 읊었다고 한다. 현수 참의 이휘진이 호수 인근에 정자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노년을 이곳에서 소요하고자 미리 이름을 지어 침산이라 불렀다. 침산이라 이름지은 이유는 설악산의 바위 봉우리가 거꾸로 호수 중간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다.

《현산지 고적조》

3. 사묘(祠廟)

勿齋祠宇 在府北十五里卽勿齋²⁹⁾俞公晦一之祠

물재사우 부 북쪽 십오리에 있다. 즉 물재 유희일의 사당이다.

《현산지 사묘조》

29) 유희일(俞晦一). 호는 물재(勿齋). 창원 출생.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 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사람들이 흠모하여 사당을 세워 추모하였으나, 사당은 사라지고 지금은 유허비(遺墟碑)만이 대포동(내물치리)에 세워져 전한다.

제 8 장 풍 속(風俗)



제 8 장 풍 속(風俗)

1. 풍속(風俗)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尚文學 貴禮義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

《여지도서 양양부 풍속조》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尚文學 貴禮義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

《강원도 양양군읍지 2 풍속조》

務農桑 恤喪葬 喜遊宴 尙文學 貴禮義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학문을 숭상했으며, 예의를 귀히 여겼다.

《관동지 13 양양부 풍속조》

喜遊宴 業農桑 恤喪葬 信巫鬼

잔치를 열어 놀기를 즐겨했으며,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으며, 장례를 불쌍히 여겨 도왔으며, 무격을 믿었다.

《현산지 풍속조》

2. 성씨(姓氏)

현산지		강원도양양군 읍지1	강원도양양군읍지2	양양부읍지
성씨	본관	본관	본관	본관
金	江陵, 金海, 慶州	江陵, 慶州, 金海	江陵, 慶州	江陵, 慶州
崔	江陵, 慶州	江陵	江陵	
鄭	延日	草溪	草溪	草溪
張	蔚珍	蔚珍	蔚珍	蔚珍
吳	海州			
李	咸平, 全義, 嘉山, 慶州	咸平, 全義, 慶州, 嘉山	咸平, 全義, 安城, 慶州, 完山	咸平, 全義, 安城, 慶州, 嘉山
朴	清州, 密陽	清州, 密陽	清州	清州
孫	密陽			
林	羅州		羅州	羅州
黃	昌原		昌原	昌原
趙	漢陽, 豊壤			
尹	坡平	坡平	南原	南原
盧	光州	光州	光州	光州
高	濟州	濟州	濟州	濟州
咸	江陵			
河			晉州	
蔡			平康	平康
崔				江陵

3. 인물

세제 시강원(世弟侍講院) 진선(眞善) 김창흡(金昌翕)이 졸하였다. 김창흡의 자(字)는 자익(子益)이고, 호(號)는 삼연(三淵)인데, 영의정 김수항의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고, 젊은 날 험기를 드날렸으며, 약관에 진사(進士)가 되었다. 일찍이 장자(莊子)의 글을 읽다가 마음속에 황연하게 깨달은 바가 있어 이때부터 세상일을 버리고는 산수(山水) 사이에 방랑하며, 고악부(古樂府)의 시도(詩道)를 창도하여 중흥조(中興祖)가 되었다. 또 선가·불가에 탐닉하여 오랫동안 스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가화를 당하자 비로소 그 형 김창협과 함께 학문에 종사하니, 그 견해가 때로 크게 뛰어났다. 만년에는 설악산에 들어가 거처를 정하고 《주역》을 읽었는데 스스로 ‘정자(程子)·주자(朱子)’가 이르른 곳이라면 또한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경종실록 41집 양양》

제 9 장 설 화(說話)

1. 童子僧의 寄智<설악산·울산바위>

산신령이 금강산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까’하고 며칠간 궁리하던 신령이 묘안을 하나 얻었다. 1만 2천 개의 봉우리를 각각 그 형체가 다르게 조각하면 훌륭한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금강산에는 그만큼의 바위가 없었다. 그래서 신령은 전국 각지 산에다 큰 바위는 모조리 보내도록 엄명을 내렸다. 큰 바위들은 모두 금강산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때 경상도 울산 땅 큰 바위도 누구에게 뒤질세라 행장을 차려 금강산 여정에 올랐다. 원래 덩치가 크고 미련한 이 바위는 걸음이 빠르지 못해 진종일 올라왔으나 어둠이 내릴 무렵 지금의 설악산에 당도했다. 날은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다.

“에라, 이왕 늦은 김에 이곳에서 하룻밤을 쉬어가자.”

하룻밤을 편히 쉬고 다음날 아침 금강산으로 떠나려고 막한 발자국을 내디디려는데 금강산 신령이 보낸 파발이 험레벌떡 달려왔다.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은 이미 1만 2천 봉을 다 채웠으니 오지 말라는 분부요.”

바위는 기가 막혔다. 어찌나 분하고 섭섭했던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길도 아득할 뿐만 아니라 체면도 말이 아닐 것 같았다. 한참 녀을 잃고 우는 바위의 모습을 지켜보던 금강산 사자는 몹시 딱했던지 바위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이 설악산이 금강산만은 못하나 울산 땅보다야 나올 것이니 여기서 머무는 것이 어떠하겠소.”

이 말을 들은 바위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했다. 이 바위가 ‘울산바위’라 불리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울산에서 왔으니 그렇게 부르자는 설악산의 공론에 따른 것이며, 바위 밑에 지금도 맑게 흐르는 물은 그때 바위가 흘린 눈물 탓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 후 몇 천년이 지나 배불숭유 정책을 쓰던 조선시대였다. 울산바위 얘기를 들은 울산 원님은 은근히 배가 아팠다. 울산바위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설악산이 금강산 다음으로 아름답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며칠간 끙끙거리던 원님은 어느 날 묘책을 떠올렸다.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가 스님들을 골탕먹이자는 계획이었다. 유생들이 득세하던 그 당시 스님 몇 명 골리기는 어렵지 않았다. 어느 날 해가 으스스할 무렵 신흥사 뜰에 교자 한 채가 놓였다.

“여봐라, 울산고을 원님의 행차시다. 주지 계시느냐?”

포졸이 거드름을 피우며 주지 스님을 불러댔다. 신흥사 주지는 때아닌 손님에 놀라 방으로 맞아들였으나 원님은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불호령을 내렸다.

“이 방자한 녀석들아, 너희 설악산에 우리 고을 바위가 서 있음에도 모른 채하기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스님은 어안이 빙빙했다. 그러나 원님의 다음 말은 더욱 뜻밖이었다.

“금년부터 바위세를 바치도록 해라. 만일 세를 내지 않을 경우 너의 절은 폐찰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엄청난 액수의 요구였으나 신흥사는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매년 꼬박꼬박 바위세를 원님에게 바쳤다. 절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졌다. 새로 부임한 주지는 이 부당한 관례를 깨

기 위해 노심초사했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주지 스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궁리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자승이 스님의 안색을 걱정하며 물어왔다.

“스님,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신지요?”

“너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

“소승에게 혹시 좋은 방안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동자승이 캐묻자 주지 스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동자승은 그런 일쯤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시냐며 바위세를 받으러 오거든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드디어 원님 행차가 당도했다. 주지 스님은 동자승의 말이 하도 당돌했던지라 슬며시 동자승을 불렀다.

“우리 절에선 울산바위가 아무 쓸모가 없소. 그 바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 수확을 올릴 텐데 매년 손해가 큼니다. 그러니 세를 받기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지 당신네가 아닙니다. 금년부터 세를 못 내겠으니 바위를 당장이라도 파 가시오.”

동자승의 말이 한 치 빈틈없이 조리에 맞자 기세가 당당하던 원님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그냥 지고 말수는 없는 터였다.

“그러면 네 말대로 바위를 파 갈 터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놓아라.”

“원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꼭 가져가거나 하시오.”

“좋다. 새끼를 태운 재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한달 후에 와서 끌어 갈 것이니라.”

주지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끼를 태운 재로 돌레가 십 리나 넘는 바위를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허나 동자승은 생글생글 웃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얼굴이었다. 그러더니 이튿날 마을 장정들을 수십 명을 사서 새끼를 꼬게 했다. 스무 날쯤 지나 새끼가 산더미같이 쌓이자 동자승은

소금을 몇 섬 물독에 풀어 새끼에다 염국을 들였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데리고 울산바위에 올라가 바위둘레를 새끼로 매는 것이었다. 그리곤 이삼일 후 다시 바위에 올라가 새끼에 들기름을 바르더니 거침없이 불을 붙였다. 기름 묻힌 새끼줄은 잘 탔지만 소금물에 절였으므로 걸만 그을려 꼭 재갈이 보였다. 동자승의 기지는 놀라웠다. 감쪽같이 불에 탄 채로 그 큰 바위를 묶었으니.

“제 놈들이 감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원님은 약속된 날 바위세를 받아갈 마밭이까지 끌고 왔다. 새파랗게 질려 세를 바칠 줄 알았는데 태연한 채, 어서 바위를 끌어가라는 말에 원님은 내심 놀랐다.

“이놈들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나를 놀리려 드느냐.”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원님은 망신을 무릅쓰고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다. 이게 웬 일인가. 정녕 불에 탄 새끼로 칭칭 감아 놓은 것이 아닌가.

“허, 그놈들 꾀가 대단하군. 이제 바위세 받긴 다 틀렸구나.”

그 이후부터 신흥사는 지긋지긋하던 바위세를 물지 않게 되었다.

2. 영산(靈山)

울산암은 설악산 어느 곳보다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장 서식하는 곳이어서 산삼, 버섯을 비롯하여 많은 약초와 산양, 범, 사슴, 반달곰, 노루, 백사, 점사 등 뱀도 많아 심마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입산하는 승려들도 많았지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고 한다. 부정한 사람이 이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때 아닌 안개가 끼여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고,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이 일어나고,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산을 영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속초문화 제3호》

3. 목탁바위

계조암이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득도에 효험이 있어 전국각처에서 많은 고승들이 수도하러 왔다 갔는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수도가 잘되는 이유를 알려고 무척 애를 썼다. 하루는 불상 앞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탁소리를 들었다. “나 혼자만 있는데, 목탁은 누가 치는 것일까?” 하고 밖으로 뛰어

나갔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가 낮잠을 청하였는데 조금 전에 듣던 목탁소리가 또 들려 옴으로 또다시 굴 밖으로 나와보았으나 사람은 역시 보이지 않고 사방은 고요하기만 하였다.

그 후부터는 하는 수 없이 수도에만 열중하여 득도한 뒤 이 암자를 떠나게 되었다. 떠나기 바로 전날 밤 꿈에 노승한 분이 나타나 “그대는 왜 목탁 속에 있으면서 목탁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 고민하느냐. 내일 날이 밝거든 계조암 앞에 있는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면 목탁이 보일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니 계조암 바위가 큰 목탁 같고 그 옆으로 뻗은 산줄기는 마치 방망이 같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옳치, 목탁 속에서 불도를 닦으니 득도가 빠르구나”하고 깨닫게 되어 그 후부터는 이 바위를 목탁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속초문화 제3호》

4. 매미의 낙원

옛날 경상도 울산 지방에 한 도사가 있었는데 낮잠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밤낮으로 잠자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일과의

하나였다. 겨울에는 아무 장애물이 없어서 좋았지만 여름철에는 개구리 소리와 매미 등살에 통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어느 해 여름, 도사는 도술로 부적을 만들어 들판에 던졌더니 그렇게 요란하던 개구리들은 울지 못하게 되어 밤잠은 마음놓고 잘 수 있었으나 낮이면 숲 속에서 우는 매미소리가 시끄러워 낮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사는 하는 수 없이 매미마저 병어리로 만들 작정으로 부적을 써서 공중에 날렸다. 눈치 빠른 매미들은 이 낚새를 미리 알고 도술에 걸리기 전에 그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동작이 느려 미처 떠나지 못한 매미들은 울지 못하는 병어리 매미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도술에 걸리지 않고 그 곳을 떠나게 된 매미들은 정처 없이 날아 가다가 이왕이면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강원도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정들고 낮익은 울산바위를 만나게 되어 울산에서 같이 살 때의 옛 정담을 서로 나누어 가며 이곳에서 살기 좋은 매미의 낙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속초문화 제3호》

5. 신흥사 유래

신흥사의 처음 이름은 향성사입니다. 신라 선덕왕 때지요. 저, 양양 상운이란 데가 있습니다. 상운이라는 데는 역 중에

서 우두머리인 찰방이 주재하던 곳입니다. 그러니 상운리에
서 이 부근 고성, 양양을 관장했지요. 자장율사가 그 상운리
에 와 보니까 지금 신흥사 있는 쪽에서 서운(瑞雲)이, 서기
(瑞氣)가 비치더랍니다. 그래서 “야, 저기가 부처님이 계시
만한 곳이구나.”고 생각하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 서기가 어
려있고, 둘레에 향기가 퍼져있어 반드시 부처님이 계시
만한 곳이구나 하고 여겼답니다.

지금 켄싱턴 호텔 앞 그 자리에 절을 짓고 향성사라 했지
요. 바로 거기에 3층탑이 남아 있어요. 그 탑은 향성사를 처
음 지었을 때의 탑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5층이라 했는데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지금 3층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후 절이 화재를 만나 나중에 다시 짓게 되었는데, 지금의 내
원암에 의상대사가 옮겨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선정사(禪定寺), 선을 아주 중시해서 이루
어진 절이라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서 다시 화재가 나
니 터가 나빠서 이렇다 해서 정보 원년 인조 22년(1644)에
영서, 연옥, 두 선사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지금 있는 신흥
사 쪽에 절을 지으면 번창하고 잘 될 것이다.” 해서 옮겨지
었으며, 신이 나타나서 절을 이룩했다 해서 신흥사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6. 도문과 신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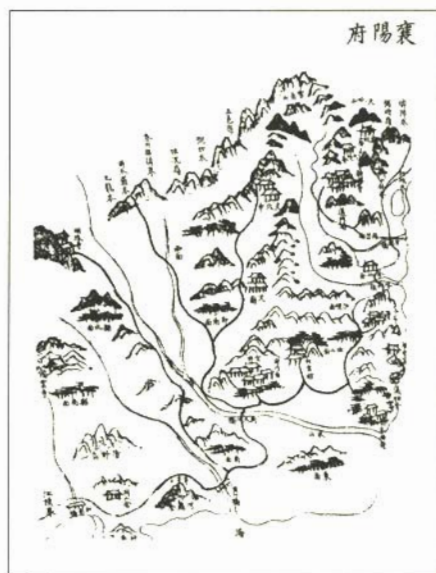
도문 옹기마을의 유래는 자장율사가 낙산사 의상대에서 쉰 후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설악산 쪽으로 들어오며 길을 물었대요. 그래서 하도문(下道門)입구에서 맨 먼저 길을 물었고, 이 사람이 올라오다가 길을 묻는 곳마다 중도문, 상도문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장항리가 노루 장(獐)자 하고, 목 항(項)자, 그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자장율사가 노루의 목을 베고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정확치는 않고 그래서 노루목이라고, 이렇게 됐지요. 자장율사가 쉰 후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다가 맨 처음에 향성사라고 지었는데, 화재가 자꾸 발생해서 어느 날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이 꼭대기를 더 올라가 서북방 쪽으로 더 가면 싸리나무가 크게 있으니 그 싸리나무가 있는데 절을 지으면 이제 좋다.”

그래서 꿈대로 절을 지었더니, 아주 절이 번성하고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신이 가르쳐 주었다.’ 해서 신흥사(神興寺)라고 했다 그래요.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제 10 장 한 시(漢詩)



제 10 장 한 시(漢詩)

1. 영랑호(杆城郡邑誌)

永郎湖

平湖鏡面澄(평호경면징) 평평한 갯물이 거울처럼 맑은데
 滄波凝不流(창파응불류) 물결은 고여서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난주종소여) 아름다운 배를 가는데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범범수경구) 등실등실 떠서 갈매기를 따르네
 浩然發清興(호연발청흥) 호연한 흥취가 발흥하여
 派洞入深幽(소회입심유) 거꾸로 흐르는 듯 마음이 상쾌하다
 丹崖抱蒼石(단애포창석) 붉은 벼랑은 푸른돌을 감도는데
 向晚欲面頭(향만욕면두) 저녁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소
 徇山泊松下(순산박송하) 산을 돌아서 소나무밑에 대이니
 玉洞藏瓊洲(옥동장경주) 옥같은 계곡이요 구슬같은 나루로다
 荷葉淨如洗(하엽정여세) 연잎은 씻은 듯이 깨끗하여
 空翠涼生秋(공취량생추) 하늘이 푸르러서 가을 기분 생기네

<안축(安軸)>

暮雲半卷山如畫(모운반권산여화) 검은구름 거쳐지니 산이 구름 같구나
秋雨新晴水自波(추우신청수자파) 가을비 활짝 개여 물결도 잔잔하다
此地重來難可必(차지중래난가필) 이 땅에 다시 오기 가필할 수 없나니
更聞虹上一聲歌(갱문홍상일성가) 배 위의 노래 소리 다시 들어 보노라

<안축(安軸)>

安相情懷黃鶴月(안상정회황학월) 안씨 정승의 회포는 황학루의 달 같고
李生行止白鷗波(이생행지백구파) 이씨 선비의 행색은 백구정 물결 같도다
重來此地誠難必(중래차지성난필) 여기에 다시 오기는 기약할 수 없으니
空聽關東一曲歌(공청관동일곡가) 관동지방 노래나 한 곡 들어보자

<이곡(李穀)>

百頃清湖鏡面平(백경청호경면평) 넓고 맑은 호수가 거울같이 펼쳐지니
扁舟載興泛空明(편주재흥범공명) 조각배에 흥을 싣고 달밤에 띄웠도다

當時只擬遊踪秘(당시지의유종비) 옛날의 놀던 자취 감추어진 것인가?
 饒舌何人強揭名(요설하인강게명) 말뚝을 어느 누구 억지로 이름 밝히려?

<구사맹(具思孟)>

2. 永郎湖(關東邑誌)

영랑포에 배 띄우고(永郎浦泛舟)

平湖鏡面澄(평호경면징) 평평한 호수 거울인 양 맑은데,
 滄波凝不流(창파응불류) 푸른 물결 엉기어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난주종소여)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범범수경구) 둥실둥실 떠서 날으는 갈매기 따라가네.
 浩然發清興(호연발청흥) 호연하게 맑은 흥 발동하니,
 泝洞入深幽(소회입심유) 물결 거슬러 깊고 그윽한 데로 들어가네.
 丹崖抱蒼石(단애포창석) 붉은 벼랑은 푸른 돌을 안았고,
 玉洞藏瓊洲(옥동장경주) 옥동은 경주를 감추었네.

徇山泊松下(순산박송하) 산을 따라 소나무 아래 배 대이니,
空翠涼生秋(공취량생추) 하늘은 푸르고 서늘한 기운 이제 가을이네.
荷葉淨如洗(하엽정여세) 연잎은 맑아서 씻은 것 같고,
蓴絲滑且柔(순사활차유) 순 채 실은 미끄럽고도 부드럽네.
向晚欲回棹(향만욕회도) 저물 녘에 배를 돌리려 하니,
風煙千古愁(풍연천고수) 풍연이 천고의 수심일세.
古仙若可作(고선약가작) 옛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어차종지유) 여기서 그를 따라 놀리라.

<안축(安軸) >

8월4일 북으로 가다 영랑호에서 배를 띄우고(北行泛永郎湖)

暮雲半卷山如畫(모운반권산여화) 저문 구름 반쯤 걷으니 산은 구름 같고,
秋雨新晴水自波(추우신청수자파) 가을비가 새로 개이니 물결 질로 생기네
此地重來難可必(차지중래난가필) 이 곳에 거듭 올 것을 가필할 수 없으니
更聞虹上一聲歌(갱문홍상일성가) 배 위의 노래 한 곡조 다시 들노라.

<안축(安軸)>

安相情懷黃鶴月(안상정회황학월) 안정승의 정회는 황학의 달이요,
 李生行止白鷗波(이생행지백구파) 이생의 행지는 흰 갈매기 물결이네.
 重來此地誠難必(중래차지성난필) 이곳에 다시 올 일 기필하기 어려운데,
 空聽關東一曲歌(공청관동일곡가) 부질없이 관동의 한 곡조 노래만 듣네.

<이곡(李穀)>

3. 금강산 가는 길(율곡학회)

行盡長松沙岸東(행진장송사안동) 늙은 소나무 우거진 모래 언덕 동쪽,
 澄清瀟灑更無風(징청소쇄갱무풍) 맑고 깨끗한 물결 바람도 없다.
 明湖一曲真如畫(명호일곡진여화) 맑은 호수 한 굽이 정말로 그림 같은데,
 雪嶽天峰倒鏡中(설악천봉도경중) 설악산 천 봉 거울 속에 박혔다.
 歷遍金剛萬二岫(역편금강만이수) 금강산 만 이천 봉 두루 돌아서,
 海棠千里踏鳴沙(해당천리담명사) 해당화 끝없이 피어 있는 명사십리
 밟았다.
 永郎湖畔初開眠(영랑호반초개면) 영랑호반에 이르니 비로소 눈 띄어,

手拍瓊壺浩浩歌(수박경 호호호가) 술동이로 장단치며 호탕하게 노래 부른다.

<이세구³⁰⁾>

비선대(飛仙臺)

瓊臺俯金潭(경대부금담) 경대같은 맑은 물을 굽어보니,
右扇排青峰(우선배청봉) 부채같은 청봉이 그곳에 펼쳐있네.
融時備衆妙(융시비중묘) 이곳이 생길 때 묘리를 갖추었던가?
豈惟勢奇壯(기유세기장) 그 형세가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한가?

<김창흡(金昌翕)>

채련곡(採蓮曲)

秋淨長湖碧玉流(추정장호벽옥류) 가을에 맑은 호숫물 옥돌처럼 흘러

30) 조선시대 문신, 호는 양와(養窩), 본관은 경주.

가고,
 蓮花深處繫蘭舟(련화심처계란주) 연꽃 피는 깊은 곳에 난초 배를
 매놓고서,
 逢郎隔水投蓮子(봉랑격수투련자) 당신보고 물 건너 연꽃을 던졌
 는데,
 或被人知半日羞(혹피인지반일수) 혹시 남이 알까봐 만나질 부끄
 럽네.

<허난설헌(許蘭雪軒)>

4. 신흥사 <현산지>

寺創紅羅運訖年(사창홍라운홀년) 절은 국운이 다하는 때에 창건되어,
 獨擎中華大明天(독경중화대명천) 홀로 中華의 명나라를 받들었네.
 若教錢牧³¹聞茲寺(약교전목문자사) 만약 전겸익(錢謙益)으로 하여금
 이 절에 대해 듣게 했다면,
 何羨蘇仙赤壁船(하선소선적벽선) 어찌 소동파의 적벽선을 부러워했겠

31) 전목(錢牧) : 전겸익. 명(明)말 · 청(淸)초의 문인. 호는 목제(牧齊)

는가?

<이수관(李壽觀)>

관동별곡(關東別曲)

高고城성을란 더만 두고 三삼日일浦포를 츠자가니
丹단書서는 宛然호되 四스仙선은 어디가고
예 스홀 머믈 後후의 어디가 一一 머믈고
仙선遊유潭담 永영郎랑湖호가
거기 나가 잇는가
淸淸澗간亭亭 萬만景景臺臺 몇고디 안뎡던고

<정철(鄭澈)>

5. 설악산 《동국여지지》

雪岳之山高萬丈(설악지산고만장) 설악의 높이는 만장이고,
 懸空積翠連蓬瀛(현공적취연봉영) 허공에 늘어진 푸른 소나무, 삼신산
 이 아니던가?

千峯映雪海日晴(천봉영설해일청) 일출로 빛나는雪峰의 눈부심이여,
 縹緲羣帝集王京(표묘군제집왕경) 높고 멀리 수많은 제왕이 가지런히
 늘어진 듯 하다.

<허목(許穆)>

부록 1

- 고려사 / 203
- 세종장헌대왕실록 / 207
- 신증동국여지승람 / 211
- 여지도서 / 219
- 동국여지지 / 223
- 양양군읍지 / 229
- 대동지지 / 233
- 강원도지 / 237
- 관동읍지 / 243
- 강원도양양군읍지(1) / 247
- 강원도양양군읍지(2) / 251
- 관동지(13) / 257
- 현산지 / 265
- 증보문헌비고 / 273
- 신흥사지 / 277
- 양양신흥사용암대사비명 / 291
- 조선도부군면정동리개정구역표 / 295
- 신흥사(강원도양양군도천면장항리)사적 / 299

高麗史

『高麗史』는 김종서·정인지 등이 1449년(세종31)에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451년(文宗 元年) 8월에 완성하고, 1454년(端宗) 10월에 정인지의 명의로 印刊된 기전체 사서로 139권 100책으로 되었다.

地理志는 『三國史記』地理志에 잇대어 고려시대의 변화된 사항을 추가기록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한 지역의 연혁을 살피는데 필요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翼嶺縣本高句麗翼峴縣

文一云伊

新羅景

德王改今名爲守城郡領縣顯宗九年置

縣今高宗八年以能禦丹兵陞襄州防禦

使四十一年降爲縣今四十四年以降賊

又降爲德寧監務元宗元年陞知襄州事

別號襄山有東濬神祠屬縣一

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景德王

世宗裝憲大王實錄

『世宗實錄』地理志가 수록되어 있는 세종장헌대왕실록은 1454년(端宗2)에 163권 67책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중에서 지리지는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이르기까지 8권 8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지리지는 팔도의 지리역사의 연혁과 변천을 알 수 있도록 편찬된 전국지리지이며, 동시에 토지의 면적, 조세, 인구 등의 경제, 군사, 행정적인 면이 강조된 인문지리의 선구를 개척한 지리서이다.

村一在羽溪縣南瑪瑙寺洞皆下邑土城八回七百把巖山石城在府西十八步內有

小渠五其三不渴羽溪邑土城九回七百鏡浦在府東北十里旁有峯峯上有亭寒松

亭古在府東十二里今遺址尚存驛十三大昌安仁岳山木界高瑞橫溪珍富大和

芳林雲交冬德在連津樂豐臨溪階嶺要宮大嶺在府西三十五里烽火五處於乙連在

任內羽溪縣南津北淮三涉地廣吾斤地北准府所伊洞在府東北隔南淮海令沙火北淮

注乙文北淮襄陽也所領都護府一襄陽郡二旌善平昌

襄陽都護府使一人本高句麗翼峴縣文縣一云伊新羅改名翼嶺為守城郡領縣高麗

高宗八年辛巳以能禦丹兵陞改策州防禦使南棟寧宗嘉四十四年丁巳以降賊

降為德寧監務寶祐六年元宗元年庚申復知襄州事本朝太祖六年丁丑以外

鄉陞為府太宗十三年癸巳例改都護府十六年丙申改襄陽別號襄山屬縣一

洞山縣本高句麗穴山縣新羅改今名為溟州領縣高麗顯宗戊午移屬翼嶺縣任

內本朝因之名山雪嶽在府西新羅東海神祠堂在府東春秋降香祝致祭中祀四境東距海口七里

南距江陵任內連谷五十里西距麟蹄三十六里北距杆城三十三里戶八百五十七口

一千二百七十七洞山縣戶一百二十五口二百十八軍丁侍衛軍七十三缸軍一百

新增
東國輿地勝覽

성종대에 盧思愼, 姜希孟, 梁誠之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우리나라 지리서다. 1481년(성종 12)에 50권으로 편찬되었고, 다시 1487년(성종 17)에 55권으로 재편집되었다.

이후 1499년(연산군 5)에 成倪, 任士洪 등에 의해 한차례 교정이 가해지고 다시 1530년(중종 25)에 增修되는데, 현재 영인본으로 많이 이용되는《신증동국여지승람》은 1531년에 완성된 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1611년(광해군 3)에 복간한 목판본이다.

紅翎 如
鄉校 在府東二里○安軸記陽之東山水奇
 秀而襄陽居其中其英奇才清之士
 必無虛言而於百餘年間未聞有
 出是邑而端人倚著此非山水之
 性不存也邑區不混一而民不知
 日此不置學於藝育人才位是邑
 而不及焉故山水之氣空濶而無
 之性性相而無以觀此豈非邑人
 到是邑聞之者皆色之北有洞相
 必古之學基而後邑父余心竊嘆
 邑人替之邑人或喜曰子志也從
 下同年交通州守正陳君監其役
 邑中正辟朴君來往任朴君亦文
 用其力以成吾志此豈非邑人之幸
 其衰也父則其狂也暴其富也遠
 家有才學之孩不實也然制度疎
 來君子焉

祥雲驛 在府南二十五里丑本近屬驛十五
 明此大康高林連倉五色祥仙驛
 車白雲練地黃項雲雲到雲天雲
 標雲嶺上草千眠雲雲雲雲雲雲
 在府北三十里○金克已詳燕前合
 在府北三十里○金克已詳燕前合

降仙驛 在府內

郡名 翼峴 伊文 翼嶺 德寧 泉州

山 朴金崔李陳 林嶽

雪岳 在府西北五十里嶺山極高
 嶺在府西六十里重巒疊嶂地
五峯山 在府東北十五里
水山 在府東
德山 在府
草津山 在府南二里
離山 在府北六十三里
陽野山 在湖山縣
雙成湖 在府北四十里杆城郡界
南大川 在府南二里出江陵府
竹箭 出竹
海松子 五
味子 紫草 人參 地黃 茯苓 蜂

<p>蜜 白花蛇 海衣 養 鱷 紅蛤</p>	<p>文魚 大口魚 松魚 鮪魚 銀口魚</p>	<p>黃魚 魴魚 古刀魚 廣魚 鱸魚</p>	<p>秀魚 雙足魚 海參 松蕈</p>	<p>城郭 色城 石築周四百三尺高五尺土築周二千八百二十五尺內有二井今年始落</p>	<p>關防 大浦營 在府東十二里 成宗二十一年自江陵安仁浦移治于此 水軍萬戶</p>	<p>一八關 正德庚辰築石城周千四百六十九尺高二十二尺</p>	<p>水山 水山烽燧 北應德山 德山烽燧 北應德山 打城</p>	<p>竹島 南 草津山烽燧 北應德山 陽野山烽燧 北應德山</p>	<p>新地 東軒 姜深 詩襄陽朱愷故人贊城 雲晴 德州 莫通 此行 情興 簿會 頗地 日更 齊 志</p>	<p>新地 太平 按 在客館南 新 抵 許 消 暑 樓 成 延 仲 前 命 名 人 到 甲 辰 年 推 屠 老 關 於 納 月 給 岸 垂 楊 半 堤 溪 社 甚 高 吟 奕 樂 鷓 白 眠 詩 青 天 朱 柱 不 用 樓 樓 弄 過 兩 林 間 調 采 石 分 炭 名 途 信 安 不 開 前 家 性 斯 樣 已 二 年 覆 松 竹 數 分 炭 氣 蔚 門 柁 柱 未 能 興 利 路 若 為 漢 登 須 泉 泉 口 道 後 堤 故 天 計 壯 未 能 興 利 路 若 為 漢 登 須 泉 泉 口 道 後 堤 古 御 經 營 自 附 府 大 平 風 月 年 千 年 島 運 官 樹 三 早</p>
------------------------	-------------------------	------------------------	---------------------	---	---	---------------------------------	---	-----------------------------------	--	--

<p>觀壺中地 水閣 雲裏 王笙遙聽 聽 龍頭月 雲 廷 詩 云 西 明 寫 地 題 掃 骨 天 大 野 東 頭 看 海 日 丹 美 林 一 面 天 見 江</p>	<p>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四十四</p>	<p>東覽四十四 四十一</p>
--	----------------------	------------------

井通靈溪湧泉温值益似春尼神可對無城氣開記
一勾天到極山四股骨亦仙我今封酒成齊有啟
住伏雷仍痛湖國成從詩玉寶陸文如飲雙九龍
可復開靈澤深越為深最的一表齋佛蒼山裡
破收氣如聯傾不勞驚矣埃新樓
身江傳有奇功不似湯盤展座始

杆城郡

東亞海岸七里南五里陽府界五十
六里西五里錫碎界八十里北至高
京郡界六十七里

建寧郡

本高句麗建城郡一云加新羅

改守城郡高麗改今名降為縣置今後

陞為郡兼任高城恭讓王元年遷折為

二本朝因之官置郡守訓導各一

迎城 加羅忽 守城 水城

本郡宋柳李張文 金李 咸

尹春尚英金竹全張丹安 孫海朴

來烈山崔麻皇甫 金全 孫平 朴

林府

形勝 西連鐵嶺 在郡西連鐵

山 麻者羅山 在郡西三南山 在郡南 金剛

山在郡西二十天吼山在郡南五音山在郡南

山頂有池古城山在郡南三十五里於丘

山一名奇少山所破嶺一名石破嶺

山在郡南十里彌時破嶺在郡南八

路已行五一帶蛇奔三百里層層樹抄插我遊

林間藏虎兒何須更說蜀彌時破嶺在郡南八

道險峻量未者難易

陽府所冬羅嶺肥復開此路

潭有大小亭十起平入湖心上有長松數株皆有亭

府春則靈瑞快最似與故人進也病其我念尤過

上風煙盤淡渡然似與故人進也病其我念尤過

即不見容永郎湖在郡南五十五里周三十餘里

平入湖心有古亭蓋是永郎仙徒遊賞之地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湖山泊鏡面清湖入深山丹度抱蒼石玉洞隨

輿
地
圖
書

1757년(영조 33)부터 1765년(영조 41)까지 펴낸 것을 합한 것으로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1개의 진지(鎭誌)가 포함되어 있다.

책은 55책으로 되어 있으며, 제14책부터 제17책까지가 강원도편이다.

내용은 강역(疆域), 방리(坊里), 도로,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성지(城池),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陵寢), 단묘(壇廟), 제언(堤堰), 창고, 목장, 봉수(烽燧), 물산(物産), 교량, 역원(驛院), 누정(樓亭), 사찰, 고적, 인물,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전세(田稅), 대동(大同), 군병(軍兵)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간행된 지 270여 년이나 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다시 고치고 그동안 달라진 내용을 실기 위해서 편찬되었으며, 1757년 홍양한(洪良漢)의 건의로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각읍의 읍지를 수집하여 간행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을 토대로 하여 조세수취와 연관된 진공·전세·대동 등이 독립적인 조항으로 정해졌으며, 방리·제언·도로·전결(田結)·부세(賦稅)·군병 등의 항목이 더해져 사회·경제적인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각 읍지의 첫머리에 채색지도가 실려 있고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덧붙여져 18세기 중엽 지방사회의 실제 모습을 아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經度	緯度	地名	說明
114° 15'	30° 15'	廣州	廣東省城
114° 30'	30° 30'	梧州	廣西省城
114° 45'	30° 45'	柳州	廣西省城
115° 00'	31° 00'	貴陽	貴州省城
115° 15'	31° 15'	昆明	雲南省城
115° 30'	31° 30'	蘭州	甘肅省城
115° 45'	31° 45'	西寧	青海省城
116° 00'	32° 00'	成都	四川省城
116° 15'	32° 15'	重慶	四川省城
116° 30'	32° 30'	長沙	湖南省城
116° 45'	32° 45'	衡陽	湖南省城
117° 00'	33° 00'	南昌	江西省城
117° 15'	33° 15'	九江	江西省城
117° 30'	33° 30'	杭州	浙江省城
117° 45'	33° 45'	寧波	浙江省城
118° 00'	34° 00'	上海	上海市
118° 15'	34° 15'	蘇州	江蘇省城
118° 30'	34° 30'	無錫	江蘇省城
118° 45'	34° 45'	常州	江蘇省城
119° 00'	35° 00'	濟南	山東省城
119° 15'	35° 15'	煙台	山東省城
119° 30'	35° 30'	青島	山東省城
119° 45'	35° 45'	大連	遼寧省城
120° 00'	36° 00'	哈爾濱	黑龍江省城

經度	緯度	地名	說明
114° 15'	30° 15'	廣州	廣東省城
114° 30'	30° 30'	梧州	廣西省城
114° 45'	30° 45'	柳州	廣西省城
115° 00'	31° 00'	貴陽	貴州省城
115° 15'	31° 15'	昆明	雲南省城
115° 30'	31° 30'	蘭州	甘肅省城
115° 45'	31° 45'	西寧	青海省城
116° 00'	32° 00'	成都	四川省城
116° 15'	32° 15'	重慶	四川省城
116° 30'	32° 30'	長沙	湖南省城
116° 45'	32° 45'	衡陽	湖南省城
117° 00'	33° 00'	南昌	江西省城
117° 15'	33° 15'	九江	江西省城
117° 30'	33° 30'	杭州	浙江省城
117° 45'	33° 45'	寧波	浙江省城
118° 00'	34° 00'	上海	上海市
118° 15'	34° 15'	蘇州	江蘇省城
118° 30'	34° 30'	無錫	江蘇省城
118° 45'	34° 45'	常州	江蘇省城
119° 00'	35° 00'	濟南	山東省城
119° 15'	35° 15'	煙台	山東省城
119° 30'	35° 30'	青島	山東省城
119° 45'	35° 45'	大連	遼寧省城
120° 00'	36° 00'	哈爾濱	黑龍江省城

經度	緯度	地名	說明
114° 15'	30° 15'	廣州	廣東省城
114° 30'	30° 30'	梧州	廣西省城
114° 45'	30° 45'	柳州	廣西省城
115° 00'	31° 00'	貴陽	貴州省城
115° 15'	31° 15'	昆明	雲南省城
115° 30'	31° 30'	蘭州	甘肅省城
115° 45'	31° 45'	西寧	青海省城
116° 00'	32° 00'	成都	四川省城
116° 15'	32° 15'	重慶	四川省城
116° 30'	32° 30'	長沙	湖南省城
116° 45'	32° 45'	衡陽	湖南省城
117° 00'	33° 00'	南昌	江西省城
117° 15'	33° 15'	九江	江西省城
117° 30'	33° 30'	杭州	浙江省城
117° 45'	33° 45'	寧波	浙江省城
118° 00'	34° 00'	上海	上海市
118° 15'	34° 15'	蘇州	江蘇省城
118° 30'	34° 30'	無錫	江蘇省城
118° 45'	34° 45'	常州	江蘇省城
119° 00'	35° 00'	濟南	山東省城
119° 15'	35° 15'	煙台	山東省城
119° 30'	35° 30'	青島	山東省城
119° 45'	35° 45'	大連	遼寧省城
120° 00'	36° 00'	哈爾濱	黑龍江省城

經度	緯度	地名	說明
114° 15'	30° 15'	廣州	廣東省城
114° 30'	30° 30'	梧州	廣西省城
114° 45'	30° 45'	柳州	廣西省城
115° 00'	31° 00'	貴陽	貴州省城
115° 15'	31° 15'	昆明	雲南省城
115° 30'	31° 30'	蘭州	甘肅省城
115° 45'	31° 45'	西寧	青海省城
116° 00'	32° 00'	成都	四川省城
116° 15'	32° 15'	重慶	四川省城
116° 30'	32° 30'	長沙	湖南省城
116° 45'	32° 45'	衡陽	湖南省城
117° 00'	33° 00'	南昌	江西省城
117° 15'	33° 15'	九江	江西省城
117° 30'	33° 30'	杭州	浙江省城
117° 45'	33° 45'	寧波	浙江省城
118° 00'	34° 00'	上海	上海市
118° 15'	34° 15'	蘇州	江蘇省城
118° 30'	34° 30'	無錫	江蘇省城
118° 45'	34° 45'	常州	江蘇省城
119° 00'	35° 00'	濟南	山東省城
119° 15'	35° 15'	煙台	山東省城
119° 30'	35° 30'	青島	山東省城
119° 45'	35° 45'	大連	遼寧省城
120° 00'	36° 00'	哈爾濱	黑龍江省城

東國輿地志

襄陽府邑誌

『여지도서』의 양양읍지와 편목과 내용이 동일하다. 전결수도 『여지도서』와 마찬가지로 기묘년(영조35년, 1759)을 기준연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구는 1759년을 기준으로 한 『여지도서』의 수치와 각 면리 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고, 군병 역시 군종은 같으나 군액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지도서』 이후에 작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편찬 시기를 추정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다. 다만 위에서와 같은 미세한 차이로 미루어 볼 때 양양군에서 기묘년 기준의 『여지도서』가 편찬된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양양부읍지』는 19세기에 『관동지』의 양양읍지가 편찬되는 데 활용되지 못했던 것 같다. 『관동지』의 양양읍지에는 기준년도 없는 새로운 호구수, 갑오년(영조 50년) 기준의 전결수, 『여지도서』와 일치하는 군종·군액수가 적혀 있다 樓亭 항목의 내용을 보면 『관동지』의 양양읍지가 『양양부읍지』 보다는 도리어 『여지도서』의 양양읍지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大東地志

『大東地志』는 조선조 후기에 金正浩가 편찬한 32권 15책 筆寫本 地理書이다. 1865년(高宗元年)에 編撰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서는 大東輿地圖와 자매편을 이루고 있으며, 地志的인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記錄을 고증적으로 인용하면서 철저한 현재적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白花蛇海衣蒼鱗紅蛤文魚大口臭松魚鱧魚銀口
臭黃魚魴臭舌刀臭鱖魚鱸臭秀臭瓠足臭海菜松
華石葦籃○黃勝封山文 高麗文宗十七年三司
奏寶嶺縣產黃金請附貢籍

樓臺 太平樓 砲碎山樓

壇通 東海神壇 載十三里 高麗以東海

典 趙高麗 頭宗二十年 東女真四百餘人寇洞山

高麗四十年 蒙兵陷萊州 恭愍王二十三年 倭寇

萊州 我軍與戰 斬百餘級 禡九年 倭寇安邊 歎谷

四出 勇掠如 踰無人之境 以趙浚李乙珍等擊倭于

洞山 斬二十餘 獲獲馬七十二匹 餘見焉 十一年

倭寇萊州

并海

沿革 本斤乙於新羅 景德三十六年 改平海為 蔚州

縣 高麗宗九年 高麗州 明宗二年 置 監務 忠烈王

時 泄知郡事 以縣人 吏議 許世 黃瑞 本朝 世祖

十二年 改郡守 為 縣 或 郡守 一員

山水 蒼谷山 西 一 金藏山 西 三 白岩山 西 四 十里

寺 厚里山 南 十里 衣山 北 十里 沙銅山 北 三十 懸鐘山 北

青鶴山 西 二十 里 花山 西 二十 里 勤八里山 北 十里 林英寺

○ 奧觀寺 花山 西 二十 里 勤八里山 北 十里 林英寺 ○

江
原
道
誌

城

襄陵本高句麗城... 新羅改置... 宗道縣今高宗朝以襄丹兵有功... 降為營... 元宗元年復加襄州事...

外縣漢為府十三年... 改高縣仁祖元年... 襄陵本高句麗城... 新羅改置... 宗道縣今高宗朝... 降為營... 元宗元年復加襄州事...

襄陽在平道中央東端... 城東西狹而南北長... 山麓相連... 流沿海多耕田地肥沃... 江陵在平道東南... 高營臨海而為急傾... 三陟在平道東端... 蔚善北江陵東... 山連峯茂麓迫海...

襄陽在平道中央東端... 城東西狹而南北長... 山麓相連... 流沿海多耕田地肥沃... 江陵在平道東南... 高營臨海而為急傾... 三陟在平道東端... 蔚善北江陵東... 山連峯茂麓迫海... 至打離津人于海耕地僅少亦甚瑣薄...

關 東 邑 誌

춘천, 울진 등 읍지의 제목 부분에 同治10年(고종8년, 1871)에 성책하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관동읍지』는 이 해에 전국에 내려진 “邑誌騰上之令”에 따라 다른 도의 統誌들과 함께 편찬된 것이다.

1871년은 서원이 철폐되고, 신미양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해였다. 이러한 중에 각종 개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이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재정, 군사면에서 지방의 실정 파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邑誌騰上之令”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此水寺學上而下海起也四注在府東此

按湖水非山谷之水流入停蓄而成者乃海水自
地中相連穿出而山谷之水特添而益之耳是故
湖水必在海遠至近之地味又鹹不可以灌溉其

理易驗

南山在府西五音山在府南十里金剛山在府北十里

麻峯山在府西十里天吼山在府南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在府西十里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翠峯山

江原道襄陽郡邑誌

「一」

[光武三年一月日 襄陽郡邑誌]

라는 内題는 이 읍지가 1899년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임을 말해준다. 1책의 전반부에는 일반적인 읍지의 기재사항과 함께 결총·호총·환총·봉급의 수치가 파악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선생안이 적혀 있다. 선생안에는 1895년에 金靖眞이 부임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고, 1책의 말미에는 이 읍지의 편찬자가 趙觀顯임을 말해주는 표시가 있다.

2책도 일반적인 읍지 기재사항이 기재된 전반부와, 선생안이 기록된 후반부로 구분된다. 1책에서 파악되지 않은 호구수가 기준연도 없이 적혀 있고, 기타 산천·누정·사찰 등에 대한 설명이 1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하다. 2책의 선생안에는 1책과 달리 趙觀顯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볼 때 1책과 2책은 전체 읍지의 상·하편이라기 보다는 별개의 읍지에 가깝다. 읍지 편찬명을 받은 조관현이 군현 내에 통용되던 2종류의 읍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결총·호총·환총·봉급의 수치를 반영한 후, 선생안을 추가한 異本과 함께 올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江原道襄陽郡邑

「二」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上峰山下海濱石窟中
 所海水入其中皆以作聲其上有小閣宇觀
 音像其巽地也 東嶽王后臨此所願降有一袖衣
 借來者四女童子與伴某果不終度履 許
 遂以某衣許
 雷音寺 在府西十里雪藏山南麓下法堂上閣
 寮舍單座十間
 神樂寺 在府北十五里雪藏山中法堂六間板閣
 二間善濟樓七間寮舍四房四十間
 內院巷 在神樂寺北十間
 明珠寺 在府南十五里上蓮山北麓下法堂上閣
 寮舍二房各十間塔五樓十間
 圓通巷 在明珠寺東二間

德山塔 在府北二十里北麓打鐵竹島南
 應水山
 華津山塔 在府南二十九里南應野山北
 應水山
 陽野山塔 在府南十五里南應江陵河文山北
 應華津山以上三塔皆新羅所設今廢
 樓亭
 不中樓 在峯館南十六里元仁宗延祐二年
 勅建灰瓦堂
 耐山樓 在府南十五里洞山縣東今廢
 觀覽亭 在府北十五里環以湖東有五片塔板
 枋仙台 在府北十五里環以湖東有五片塔板
 可觀兼有塔今廢

寶蓮巷 在明珠寺北十間
 古跡
 義相臺 在府東二十里觀音窟之南臨海神地
 即神僧義相可遊處也
 繼祖窟 在府北十五里上蓮山下窟焚燒研中有
 僧舍園石名在
 飛仙台 在府西十五里雪藏山南麓下法堂上閣
 環宇如為瀑水傳名碑台之北壁石塔尖罕
 大木如切板
 河趙台 在府南三十里小麓進八法中流絕為台台
 之左右巖壁奇古法湧衝激浪奔翻鼓世傳
 閻初河秦趙世遺是故趙名之
 權金城 在府北十五里雪藏山中於甚高絕石

冷泉 在府北十五里上峰山中世傳觀音化為深女川瑞
 於此現日現秋分泉德之齋據去前樞詩曰
 德女古泉沙受劫晚公道環樹生天
 五色泉 在府南十五里雪藏山北麓下法堂上閣
 為井成五色泉也
 沙林寺 在府南十五里沙林寺建項乃將全明習
 集工成之字法以覺洋寺塔古塔古塔以爲寶十
 今在府南十五里雪藏山南麓下法堂上閣
 黔連洞 在府南十五里雪藏山南麓下法堂上閣
 府南十里板土
 土王城 在府北十五里雪藏山南麓下法堂上閣
 府南十里板土

關
東
誌
「十三」

관동지의 편찬 시기는 명기되어 있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관동읍지』(1871)의 「선생안」에 군수의 도이임(到離任) 년월이 기록된 읍지가 14개나 있다. 이를 토대로 『관동지』의 「선생안」과 비교해보면 각 읍지를 종합하여 成冊한 것은 1829년에서 1831년 사이로 추정된다.

관동지는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3권에 양양과 간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峴山志

말미에 붙어 있는 선생안을 미루어 볼 때 1879년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에는 간지 앞에 《今上》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정조(正祖)를 지칭한다. 정조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 하한선은 1800년(정조24)이다 이는 현산지의 원본이 이미 정조 말에 편찬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순조대를 《今上》으로 표현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정조 말에 편찬된 현산지가 순조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보되어 갔음을 말해준다.

이 읍지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으로서, 조선후기 관찬지리지 편찬 사업과는 무관하게 편찬되었다. 18세기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관찬지리지의 항목과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그만큼 편찬자 자신의 지역 인식과 의도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었다.

峴山志

建置沿革

本高麗置峴縣一云伊文羅新羅時改為水城郡
縣高麗顯宗時置縣今高宗八年以禦契丹兵有功
陞為襄陽防禦使四十四年以降賊事降為德寧監
裕元宗元年改知襄州事本朝 太宗六年以穆祖
外鄉陞為府 太宗十三年例改為都護府十六年
改襄陽府光海戊午以逆亂降韓為縣 仁祖元年
泰亥陞府戊辰以逆亂降韓為縣丁丑陞府
屬縣



九名

水源

青草湖在府北三十里周回數十里每冬冰含有十
頃犁破之狀是夜湖上民牛皆喘汗那人謂之龍耕
以此占歲豐凶一名變成湖
蓋馬湖在府南四十里周四五里
寶湖在府東五里葦菜甚佳
漢水在府南數頃即所謂南大川冬用橘夏用船
道門川源出內院洞與舍堂川合流為沔川有橋
大峴川源出望景巖與峴川合流為廣汀川有橋

道門面在府北三十里

元戶一百八十五戶男二百三十七口

所川面在府北三十五里

元戶一百八十二戶男三百六十五口

西面在府西一百十里

元戶二百三十二戶男四百四十二口

東面在府東十里

元戶一百四十四戶男二百二十九口

南面在府南十五里

元戶九十二戶男二百三十六口

進貢

人參三等所封四十四兩

銀口魚 生連魚 松魚 松等十九兩 東貢
松等七兩 二等五分
合四十四兩 七錢一分

生乾大口魚 文魚 已上川出

海參 紅蛤 生蟹 粉麩 早簾 大口魚卵

已上海出

糶糶

軍資倉租四十七石 米三十二石

風俗

喜遊宴 業農桑 恤喪祭 信巫鬼 出賭覽

姓氏

金江波金海 崔江波 鄭光日 張府地 吳海

李城平金義 朴濟州 孫陽 林羅州 黃西
趙漢陽 尹坡干 盧光州 高谷州 咸江波

德山津在府北二十五里
東草津在府北三十里

里站

南程王道墩十里 墩即長柱

長孫墩十五里

祥雲墩二十里

龍輪墩二十五里

廣汀墩三十里

新津墩三十五里

奇士門墩四十里

津浦

陽野津在府南六十里

洞山津在府南五十里

羊津在府南四十里

烏山津在府東十五里

水山津在府東十里

東津在府東十三里

洛山津在府東北十五里

浚津在府北十五里

洵溫津在府北二十里

栗阜墩三十里

東津地境墩三十五里

島嶼

竹島在府南五十里 洞山嶽東盡竹古有觀瀾亭今

岸上有駐節巖中有鍊砂臺訪仙巖弄鶴巖石刻鄉

人鄣側重所命

無路島在府北三十里 東草津東產竹

物產

虎皮 熊皮 獐皮 獐毛 猪毛

狸皮 獬皮 海獺 水獺 海熊 海豚

北釜墩四十五里
觀瀾亭墩五十里
城堤墩五十五里
斗尾墩六十里
祀高嶺墩六十五里
江陵地境墩七十里
北程月潭墩十里
北津墩十五里
勿淄墩二十里
澆山墩二十五里

紫蟹 紅蛤 海葵 生類 大口魚 魴魚
加魚 廣魚 文魚 沙魚 洪魚 松魚
連魚 黃魚 銀口魚 鱧魚 鯉魚
蘆 藍 芥 橘 竹 蓍 梨
栗 柿 否 桃 銀杏 櫻桃
胡桃 木米 榛子 楸子 蓮子 柘子
五味子 五加皮 芝草 紅花 薯蕷 松茸
晚耳 石耳
牧墟
分春馬二匹八月後末五月上納馬料荒租七石一

在上峯山即新羅僧義相所遊處因以名之 按蓋
世說義相祖即唐高祖武潯八年乙酉生新羅二十
六歲年五四十七年也龍朔元年辛酉入唐就學於
智岩禪師咸亨二年辛未遷新羅三十文武三十一
年也武后長安二年壬寅示寂年七十八

編祖窟
在府北五十里天吼山下眾勢紛紜如屋于樣世傳
編祖禪師修道處窟之南盡石上有石一人動之有
微動萬人動之動不加焉名以動石窟號三守大列
尹判書淳筆

平臺深渺仙蹤 祀天冰蒼花物失留落日半啣青草
沅微風乍起白蘋洲今廢
秘仙臺

在府北五十里海上巖石平寬可坐數十人
觀音窟

在府東十五里五峯山海濱石窟中圻海水入其中
噌吰作聲其上作小閣安觀音像我 翼祖與貞叔
王右崔代詣此祈嗣夜夢有一衲僧來告曰必生貴
子其名善來未幾 度祖誕生遂以善來名
義相塔

權金城

在雪岳之東神潭寺南巖几縹緲不待杖衛登臨
望嵐懷宏豁山腰有石等城俗傳權金二家避乱于

土王城

在府北四十里雪岳之東瀑布掛流數百丈氣勢甚
壯有石等世傳土性王所造云

卧仙臺

在雪岳之東食堂洞中白石平鋪清川中流或布而
為瀑或停而為潭

飛仙臺

在卧仙臺之上川石視卧仙无膝而止崖石嶂之巖
嵒夷東令人驚吁亦逢采之所無三淵金公昌翁呼
謂東方川石中上乘者臺彌三字大列尹判書澤筆

浸山亭

在府北四十里青草湖之東范陶庵李尚書緝嘗遊
山到此數日喟詠見峴史李泰議素音約以臨湖起
亭以休晚年適逸之所而預作名曰浸山以雪岳峯
密巖倒湖心而然也今廢

此改名 按益社記癸丑丹兵闖入我疆是州於雪
岳山等城守禦狀指此

宜春菴

在府西十五里盡石極佳鳴岩寺公海朝命以宜春
岩號三字大刻鳴岩筆

雲門菴

在府南六十里明珠寺之西洞水石極佳峴史李公
景晉命以雲門岩名號三字大刻李衡巽筆

碧玉潭

在西西五里鹿門山下水湫而澄北崖岩石叢差側

神興寺

在府北五十里雪岳之東崇禎甲申以禪定寺移稱
今上丙子監司韓光肇設置禪教都僧統丁丑府使
任公希欽以閑來緇營四字別揭寺門在午監司李
公最中華蘇甲申初設三賢

雪岳庵在青峰下一名昔門庵額三大字李公景漸
筆內院庵在天吼山下 今上丁未山人幸稔重僧
安心庵在內院庵之西谷數里 今上戊午山人天
心初之

小环庵在達摩峰下 今上甲戌山人冲鏡那之手
公壽觀題德柱曰 寺初紅羅蓮訖年獨警中華大
明天若教錢收聞茲寺何美猴仙秀壁融

常出入為不測之聲世稱觀音大士所住處也窟前
距五十許步海中石上可鋪一席出汶水面昔新
羅法師欲親觀聖容乃於石上展坐椅拜稽勤至二
七日尚未親就便扶身海中東海龍扶出石上大聖
即於窟中伸臂手授水精念珠曰我身未可親觀但
從窟上行至雙竹湧出處是吾頂上於此可營一室
安排像設也龍亦獻如意珠及玉師皮珠而承有雙
竹湧立乃於其地初殿以龍所獻玉造像寺之即茲
寺也

印日庵有梨花市南苑 今上乙丑山人粹精初之

增
補
文
獻
備
考

兄山

火城郡○不設河道在於慶州兄山嶺 清海鎮 助計島○今西邊

小祀霜嶽

高城郡○高城嶽 雪嶽 遼城郡○原本作今河邊 華嶽 斤平郡○

緇嶽

七重嶽○ 負兒嶽 北漢山州○今京都 月奈嶽 月奈郡○ 武珍嶽 武珍州○

西多山

伯海郡○ 月兄山 奈吐郡○ 道西城 高野郡○

川冬老嶽

遼陽郡○ 竹旨 及俄山郡○ 熊只 眉自郡○ 嶽髮 子珍島○

野珍○

于火 西島郡○ 三岐 火城郡○ 卉黃 本

○今

高墟 沙梁○ 嘉阿嶽 三年山郡○ 波兵谷原嶽 阿文縣○

本號為阿今

非藥嶽 遇火郡○ 加林城 加林縣○

加良嶽

青州○ 西述 牟梁○

高勾麗以三月三日會獵獲猪鹿祭山川

增補文獻備考

卷六十一

禮考

十八

增補文獻備考

神
興
寺
誌

義湘以新訂耶文妙山之主... 利是教主... 三元年庚戌... 大德所... 武王十年庚子... 南岳山至嚴平... 運... 法師... 外... 是... 一... 彼... 伊... 東... 至... 行... 中... 湖... 若... 狀...

鬚長尺餘... 是... 仙... 法... 報... 外... 法... 步... 道... 室... 不... 都... 處... 得... 厥... 突... 言... 然... 了...

華嚴寺此堂乃花草以三根之萃樹川竹啼并工
 鶴之松聲川啼并此堂乃禽獸以三香風之和陽
 於上秋也 毛嚴源此此堂乃龍身以竹武陵桃源
 可完然并此堂之一節并此衣冠寺清溪松枝川
 高掛并之清溪水以濯足并立盤石上可偃臥并此
 凡皆以接續列竹明北登仙並受并外若開川老松
 之幽僻處是法醫并正四圍并峰巒毛佛故以
 介用并外從否至今三賢人道士并函名善字并
 石面之松并及外仙人遊處我遊時并可忘并
 二 此川并外

金剛窟

雪峯山以至峰之青峰并一脈以西北之至長走并之
 中開川萬仞以并外之石像并發身立并且二并此
 彌勒峰以二峰下萬丈懸崖并中腹川一天孔穴
 以天然自開并且也稍金剛窟以并石壁細路
 是緣并中南面登臨并此切閣後橋是一通并
 生外尤難并外昔日則遊也高僧并此窟川
 棲息并外并佛禮敬并時安心行道并自安并
 有并外現今并外因川石佛像一柱并外若若道其
 達物段材等以發有并且并外容若之四方并
 并餘尺以并外入以并外四方是極復并此東也
 長谷川東海川通并外萬里流溪以服中川入并之
 矣并外西南一帶之白雲千佛洞之通并外萬里流溪

華嚴寺此堂乃花草以三根之萃樹川竹啼并工
 鶴之松聲川啼并此堂乃禽獸以三香風之和陽
 於上秋也 毛嚴源此此堂乃龍身以竹武陵桃源
 可完然并此堂之一節并此衣冠寺清溪松枝川
 高掛并之清溪水以濯足并立盤石上可偃臥并此
 凡皆以接續列竹明北登仙並受并外若開川老松
 之幽僻處是法醫并正四圍并峰巒毛佛故以
 介用并外從否至今三賢人道士并函名善字并
 石面之松并及外仙人遊處我遊時并可忘并
 二 此川并外

金剛窟

雪峯山以至峰之青峰并一脈以西北之至長走并之
 中開川萬仞以并外之石像并發身立并且二并此
 彌勒峰以二峰下萬丈懸崖并中腹川一天孔穴
 以天然自開并且也稍金剛窟以并石壁細路
 是緣并中南面登臨并此切閣後橋是一通并
 生外尤難并外昔日則遊也高僧并此窟川
 棲息并外并佛禮敬并時安心行道并自安并
 有并外現今并外因川石佛像一柱并外若若道其
 達物段材等以發有并且并外容若之四方并
 并餘尺以并外入以并外四方是極復并此東也
 長谷川東海川通并外萬里流溪以服中川入并之
 矣并外西南一帶之白雲千佛洞之通并外萬里流溪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襄陽神興寺龍巖大師碑銘
 朝鮮國龍巖受大禪師碑銘
 直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總巡
 監春秋館事 世子傳李福源撰
 府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
 卿 攝府都摠管姜世晃書
 老人抱出憂疾久謝筆硯有厚庸弘慈者為師乞銘
 守東郭經歲不去新叩益堅余始而疑卒而歎曰彼
 雖異吾道而欲竭其道之忠於身去之後如此殆有
 不期然而然者存焉是足以銘矣按其狀師法名體
 照神龍巖本郭姓長城士族幼失而親與其兄北遊
 兄歸而獨寓南漢隨釋檢長老入香山祝髮安戒於

白蓮安智欽大師後遺日處法師蓋肆力於內外典
 博念南北諸宗而歸日處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
 師自此卓錫整持施教日廣蓋於清虛為七世孫云
 晚并謝蓮門徒一日弟子洪波往省之師疾病索筆
 書偈曰與我有親親何時更有親親亡返前昔在今
 又蒸因我今又得在前聖是吾親今親大笑去楓
 萬坪濱乃浴身更求過三日示寂即已及十二月二
 十一日壬戌也壽六十七法臘五十一門徒等建塔
 於內院之東寶政舍利師易施予有心計自意欲
 解屬辭有詩文若干篇傳於其徒余於少時游雪巖
 意有高輝逸士棲巖於巖洞松桂之間而未之見也
 今聞師住此山四十年竟以樂終其得來自源自營

而融於心者必有神解妙詮之可以吸提人性靈者
 師之過真境而恨余之無夙因也銘曰
 我不識師 銘莫以為 見師之獨 如其見師
 東有香山 奈海其鄰 銘師於吳 是亦夙因
 崇祿元年後三己百五月 日立
 襄陽神興寺大圓大師碑銘
 有明朝鮮國大圓受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列中樞府事原任 奉章
 間直提學命齊錫撰并篆
 嘉善大夫工曹參判燕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
 府副摠管曹允亨書
 嘗徽名于城中古清寒子登三淵論遺蹟尚在而聞

翁所嘗與為淨社之游如明道人確大師其人皆空
 寂而發起上津投其遺跡而共致一役之而賢者莫
 方內外之間而余嘗居白岷之墅有比丘遠聞者自
 嘗獲夫千里馬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萬是大圓
 大師也嘻即其淵源之所自可知而師矣師法名燕
 外神大圓空文本姓高麗江城君蓋漸之役父壽遠
 母金氏夢月而誕既生肌膚淨潔不藉洗浴為兒婦
 戲管伴事見者異之甫成童當代中國難奔赴南
 漢守城有勞難已賞劍獲多當芽遂力解而歸忽自
 念人之取於物者以有實明也其可緣形性喪吾
 神珠子既而父母擇對將訊日送之乃中夜脫身走
 入雪嶽問道日慶大師大師即賢道人也贊與諸奇

之傳其心印錄其上有雪巖月滿楓潭般若以接牙
清虛於師六世也師既有慧然於內外典深獨得以
聞衆覺中平苦眼昏於是而堅心灰回光內照行並
苦道益身蔚然為一代竹林之宗今上辛友七月
乙酉寂于雪巖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
衆曰我將行矣共勿以緣文累我既化有光燭天
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為得嗣以歲之六
余仍語之曰爾循道以無為為宗顯揚寰天何有收
師哉爾曰以為無也則三千大界使作受舉以為有
也則真妄皆境隨而在而致力亦人之道也爾頌五
而氣清獨習空與身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山願
見其木者歟遂為之銘曰

赴難避貧清虛之風芳 因性早覺月窟之道芳

五祖傳印昭濟之標芳 由茲入定水止強空芳

雲山瑩煥寶珠玲瓏芳 於千萬年故飲腐於芳

崔昶此元微三五子十一月 日立

襄陽涇山寺海龍觀音碑銘

有明朝鮮國江原道涇山寺海龍觀音堂中舍利碑

銘

嘉善大夫江原道防禦使兼春川都統府使孫宏

錫撰

我東以山水勝名天下而蔚東為一國之最蔚東稱
八景而涇山寺尤著聞諱者或以冠之前筆之叙述
獨夫寺之靈跡甚夥而 觀音靈相說義相元晚堂

朝鮮道俯郡面町洞里改正區域表

神興寺
「江原道襄陽郡道川面璋項里」
史蹟

神興寺(江原道襄陽郡道川面嶺項里)史蹟

一千六百七十九年(新羅眞德女王六年壬子) 慈嚴律師 靈巖山外東 香城寺創科
 慈嚴寺 靈巖律師能仁庵堂創科
 慈嚴寺 九層石塔堂創科 佛舍利堂奉安科
 一千六百八十九年(新羅文武王二年壬戌) 寺僧神鏡 少林庵堂創科
 一千七百二十五(新羅孝昭王七年戊戌) 香城寺 能仁庵 創科
 一千七百二十八(新羅孝昭王十年辛丑) 義海法師 香城寺 能仁庵址 創科
 重建科 禪定寺 改稱科
 義海 深庵僧 普像大勢坐像 造放科
 一千六百六十九年(朝鮮宣祖十五年壬辰) 兵賢 土田因軒 九層塔 破壞科
 一千六百六十九年(朝鮮仁祖二十年壬午) 禪定寺 創科
 一千六百七十一年(朝鮮仁祖二十二年甲申) 寺僧靈瑞 蓮玉 惠元等 禪定寺 古址 下十里地 重建科 神興寺 改名科 寺蹟碑 立科
 巖岩大師 能仁庵 古址 重建科 內院庵 改稱科

八六

一千六百七十四年(朝鮮仁祖二十五年丁亥) 寺僧靈瑞 蓮玉 惠元 大雄殿 創建科
 二千六百七十七年(朝鮮孝宗元年庚寅) 大內에서 香爐 坐像 賜造科
 二千六百八十八年(朝鮮顯宗二年辛丑) 海藏殿 創科 法華經 中禮文 結手文 撰文等 刻板 本堂 創科
 二千七百四十二年(朝鮮肅宗四十二年乙未) 說禪堂 創科
 二千七百四十四年(朝鮮肅宗四十四年丁酉) 寺僧狀眞 益成等 說禪堂 重建科
 二千七百五十二年(朝鮮英宗元年乙巳) 海藏殿 重修科
 二千七百六十四年(朝鮮英宗十三年丁巳) 冥府殿 創建科 地藏菩薩像 聖成科
 二千七百六十七年(朝鮮英宗十六年庚申) 寺僧出蓮 留應 雷雲等 寺量 殿瓦科
 二千七百七十五年(朝鮮英宗二十四年戊辰) 圓覺居士 大鐘 中鏡 金鼓 各一 坐像 鑄成科
 二千七百七十六年(朝鮮英宗二十五年己巳) 寺僧學重等 大雄殿 重修科

二千七百八十八年(朝鮮英宗三十七年辛巳) 寺僧弘微 弘運等 大雄殿 石階 重修科
 二千七百九十七年(朝鮮英宗四十六年庚辰) 大雄殿 佛濟樓 重修科
 二千八百一十一年(朝鮮英宗五十年甲申) 後輔大師 佛濟樓 佛堂 改金科
 二千八百二十二年(朝鮮正宗九年乙巳) 寺僧俊鏡 安養庵 創科
 二千八百五十五年(朝鮮正宗十二年戊申) 化主弘漢 大鐘 中鏡 金鼓 改鑄科
 寺僧顯谷 海藏殿 重修科
 二千八百二十四年(朝鮮正宗二十一年丁巳) 寺僧福惜 巨賢 冥府殿 重修科
 寺僧吳璣 淑璋 始澤 設有等 海藏殿 丹楹 創科
 二千八百二十五年(朝鮮正宗二十二年戊午) 十王像 改彩科 地藏廟 造 成科
 二千八百二十八年(朝鮮純祖元年辛酉) 寺僧碧波 楊情等 龍船殿 創建 科
 列聖廟 位牌 奉安科
 二千九百一十年(朝鮮純祖十三年癸酉) 寺僧周賢 結條 撰發等 不二門 再斷 門 重建科
 寺僧碧波 楊情 芙曉 勝瑞等 佛濟樓 重修科

八八

二千八百四十八年(朝鮮純祖二十二年辛巳) 寺僧巨賢 迎安 芙曉 勝瑞 楊情等 佛濟樓 重修科
 二千八百五十四年(朝鮮純祖二十七年丁亥) 佛樂寶殿 丹楹 創科
 二千八百五十六年(朝鮮純祖二十九年己丑) 化主法圓 中鏡 坐像 鑄成 科
 二千八百八十五年(朝鮮哲宗九年戊午) 碧河 明成等 十六羅漢像 九 月山貝葉寺 受平 海藏殿 移安科 海藏殿 經板 大雄殿 移安科 海 藏殿 應真殿 改稱科 小香閣 重建科
 二千八百八十七年(朝鮮哲宗十一年庚申) 內院庵 創科
 二千八百九十二年(朝鮮哲宗十六年丙寅) 寺僧真愚 安養庵 殿瓦 創科
 二千八百九十八年(朝鮮高宗八年辛未) 化主尙念 寂默堂 重修科
 寺僧雪月 寂默堂 後閣 重建科
 二千九百一十二年(朝鮮高宗十二年乙亥) 寺僧普琳 安養庵 佛像 改金科
 二千九百一十九年(朝鮮高宗十九年壬午) 勸峯 內院庵 獨樂殿 重建科 山 神 鎮 堂 造放科
 二千九百一十二年(朝鮮高宗二十二年乙酉) 內院庵 創科
 勸峯 內院庵 重建科

一千九百十七年(朝鮮高宗二十七年庚寅) 眞影閣이 願成하되 眞影堂와 寶藏堂이 移安하되
 應化大師 | 靈顯庵의 三聖閣을 創하되
 一千九百十八年(朝鮮高宗二十八年辛卯) 內院庵의 後佛幀七尊 佛神將의 像을 造成하되
 一千九百十九年(朝鮮高宗二十九年壬辰) 眞影閣이 頽壞하되 寺僧仙岳이 眞影閣의 遺材로 三聖閣을 重建하되
 一千九百二十年(朝鮮高宗三十年癸巳) 東吳, 逐月兩師이 募錢하되 十王像을 改彫하되 聖舍를 修繕하되
 一千九百二十九年(大韓光武六年壬寅) 寺僧致應이 大雄殿과 聖舍를 修葺하되
 一千九百三十二年(大韓光武九年乙巳) 寺僧滿月이 佛像을 改金하되 衲蓋香室을 修하되
 一千九百三十五年(大韓隆熙二年戊申) 東庵이 殿廡庵을 丹繪하되 東泉이 後佛幀을 造成하되
 一千九百三十六年(大韓隆熙三年己酉) 殿前殿이 毀하되
 一千九百三十七年(大韓隆熙四年庚戌) 應眞殿이 災하되

一千九百三十九年(壬子) 乾鳳寺의 末寺가 되다
 一月에 洪興實이 住持에 被任하되
 一千九百四十六年(己未) 應眞殿을 重建하되
 一千九百四十八年(辛酉) 法殿과 聖舍를 修繕하되
 十二月에 李聖好이 住持에 就任하되
 一千九百五十一年(甲子) 說禪堂後閣三十二間을 重建하되
 十月에 李春誠이 住持에 就任하되
 山火에 因하되 山林의 大部分을 燒하되 火木을 賣하되 第十四斗落을 賣入하되

神興寺層庵一覽

靈顯庵
 一千六百七十九年(新羅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이 創하되 一千九百十七年(庚寅) 應化 | 三聖閣을 創하되
 內院庵
 一千六百七十九年(新羅眞德女王六年壬子) 慈藏이 創하되 初名龍仁庵이다
 一千七百一十五年(戊戌)에 災하되 一千六百七十二年(甲申)에 龍岩이 重建하되
 內院庵의 時改稱하되 一千八百八十七年(庚申)에 災하되 當年에 慈藏이 重建하되 一千九百十二年(乙酉)에 災하되 勤峰이 重建하되
 安養庵
 一千八百二十二年(朝鮮正宗九年乙巳)에 俊鏡이 創하되
 少林庵(廢庵)
 一千六百八十九年(新羅文武王二年壬戌)에 創하되 廢年代는 未詳하되나 殿石庵, 東土窟, 西土窟, 安心庵, 洗滌庵, 先日庵
 以上은 香林寺時의 廢庵이니 創廢가 未詳하되나
 極樂庵, 智無庵, 香爐庵, 上院庵 以上은 禪定寺時의 廢庵이니 創廢年代는 未詳하되
 東庵, 白花庵 以上은 神興寺時의 廢庵이니 創廢年代는 未詳하되나

神興寺의 建物

極樂寶殿 二十間 冥府殿 十二間 大香閣 十二間 三聖閣 六間
 靈山殿 八間 小香閣 十間 禪堂 六十八間 僧堂 六十二間
 香齋樓 三十二間 天王門 六間 養老房 六間 庫房 三間
 水閣 二間 便所 六間
 共計 二百五十三間
 神興寺層庵의 建物
 內院庵 五十八間 靈顯庵 六間 安養庵 六十二間
 共計 一百二十六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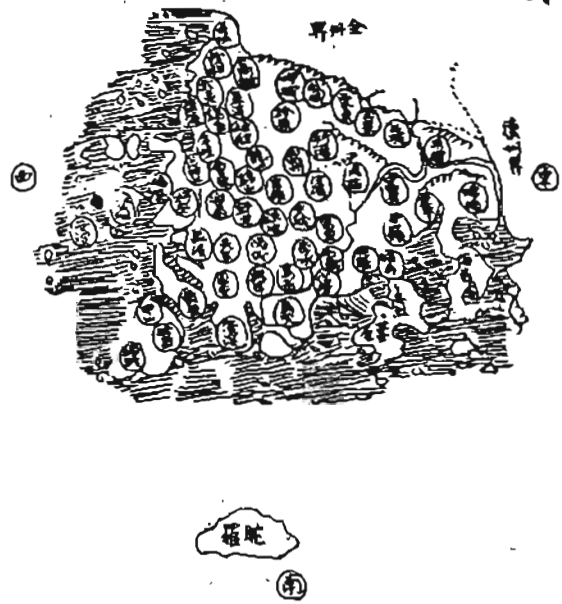
神興寺의 土地

社寺地 三,三四〇坪
 田 一一,〇八四坪 七八,一〇五坪
 田 四六,八三九坪 三九五五〇三
 塚 三,五七〇坪 一七四四五五

부록 2

대동지지 / 307
동국여지승람 / 309
여지도서 / 311
대동여지도 / 313
청구도 / 315
관동지 / 317
관동읍지 / 319
관동지13 / 321
팔도지도 / 323
양양읍지도 / 325
고성군지도 / 327
간성지도 / 329
해동지도1 / 331
해동지도2 / 333
해동지도3 / 335

武州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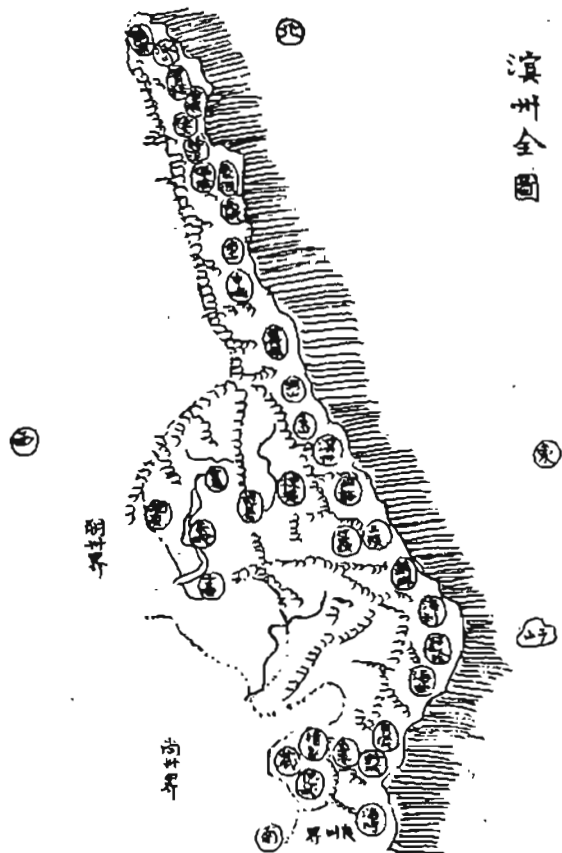


州都督府 如玄碓析湯龍山 ○錦山郡 領會津餘
 脛鐵冶 ○潘南郡 領野老昆洎 ○秋城郡 領栗原
 玉果 ○武靈郡 領長沙茂松高啟 ○歷海郡 領碣
 島鹽海安波 ○務安郡 領咸豐多岐海際珍島 ○
 牢山郡 領瞻眺 ○岬城郡 領森溪珍原 ○靈巖郡
 ○湯武郡 領浸溟固安黃原眺津 ○寶城郡 領烏
 兒馬邑李水代勞 ○陵城郡 領富里汝洎 ○分嶺
 郡 領北陽忠烈栢舟蓋原 ○谷城郡 領同福求禮
 富右 ○昇平郡 領海邑廬山蹄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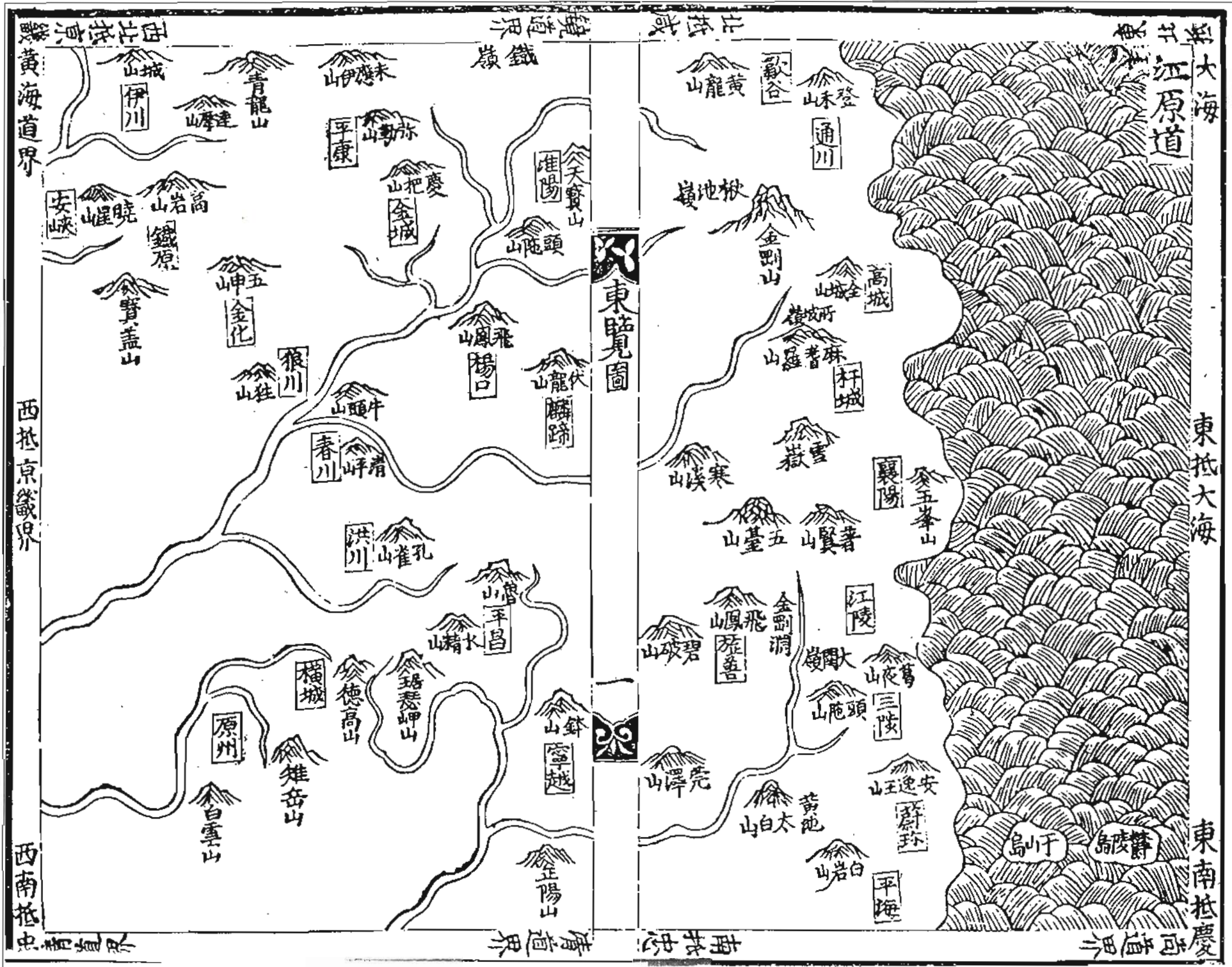
大東地志 全圖

百柱千堂

溟州全圖



溟州都督府 領疎堤支山桂善洞山 ○三陟郡 領竹
 嶺滿鄉海利羽谿 ○蔚珍郡 領海曲 ○高城郡 領
 泰微偏陰 ○守城郡 領童山翼嶺 ○金壤郡 領臨
 道堤上習谿泓川 ○奈城郡 領子春白鳥酒泉 ○
 野城郡 領真安積善 ○有隣郡 領海河 ○由城郡
 領綠武



東昭覽圖

東抵大海

西抵京畿界

南抵京畿界

東抵大海

南抵京畿界

北抵京畿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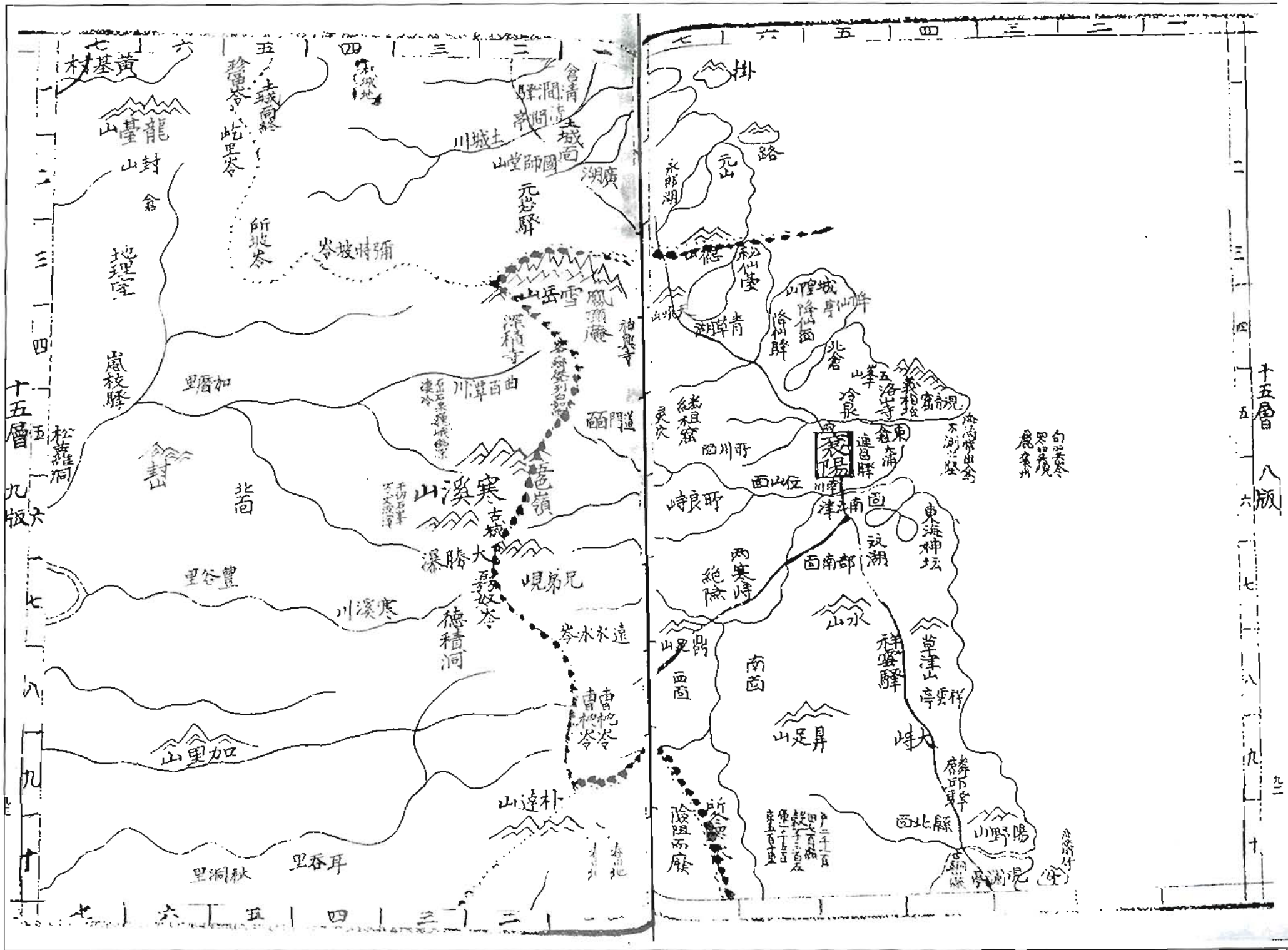
襄陽府

江原道襄陽





대동여지도 철종12년(1861) 김정호(조선)작 / 채색도 36.5cm ×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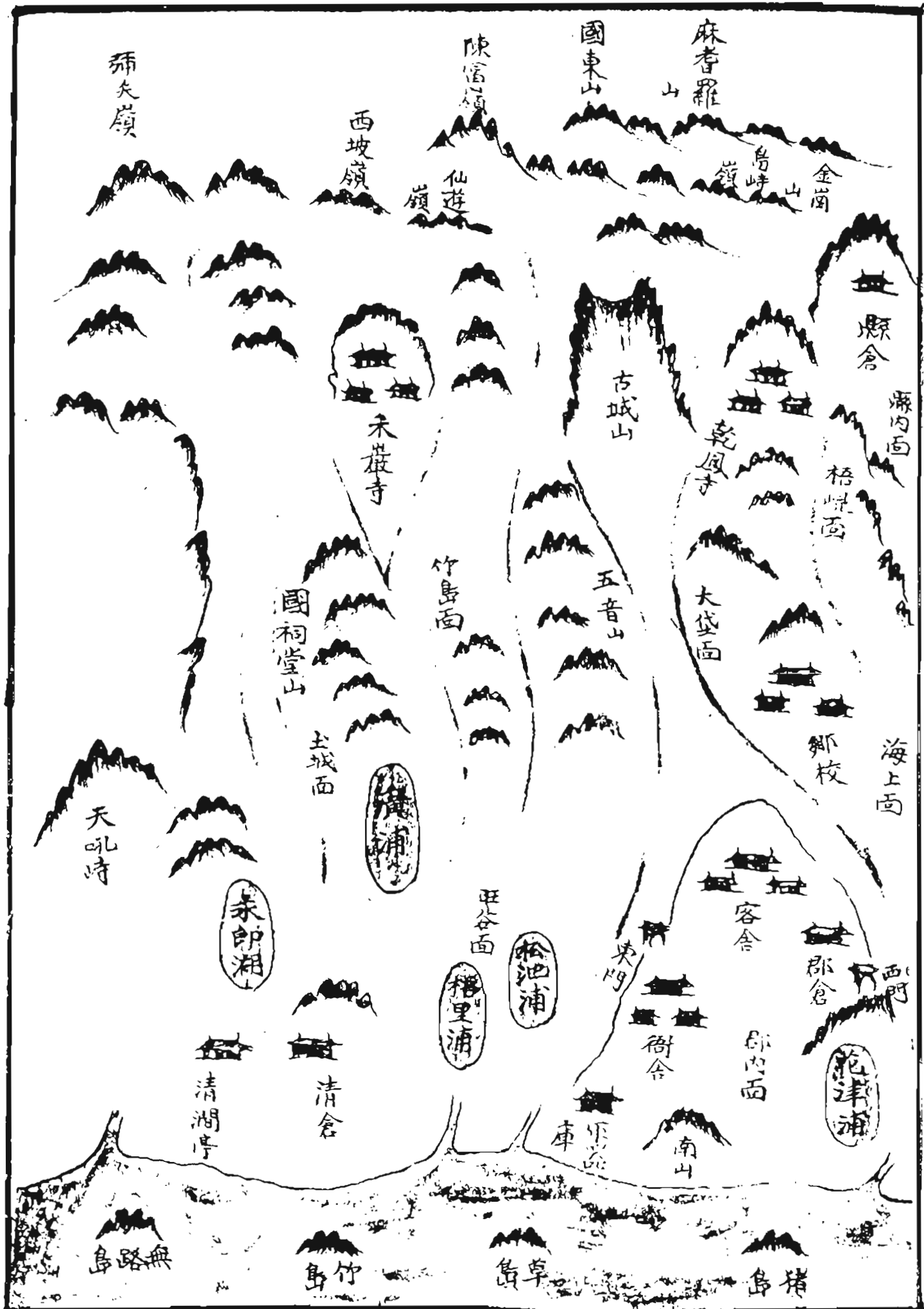


十五層
九板六

十五層
八版

Seogye-do





彌夫嶺

陳富嶺

國東山

麻者羅山

西坡嶺

仙遊嶺

鳥峙山

金崗

縣倉

源内面

古城山

未葦寺

乾風寺

梧岫面

竹島面

五音山

大盛面

國祠堂山

土城面

郷校

海上面

天吼峙

廣浦

赤郎湖

亞女面

松池浦

榎里浦

英門

客舍

郡倉

西門

清湖亭

清倉

衙舍

郡内面

乾津浦

庫

南山

島路無

島竹

島草

島猪



팔도지도 정조14년(1790) 정상기(조선)작 / 채색도 100cm×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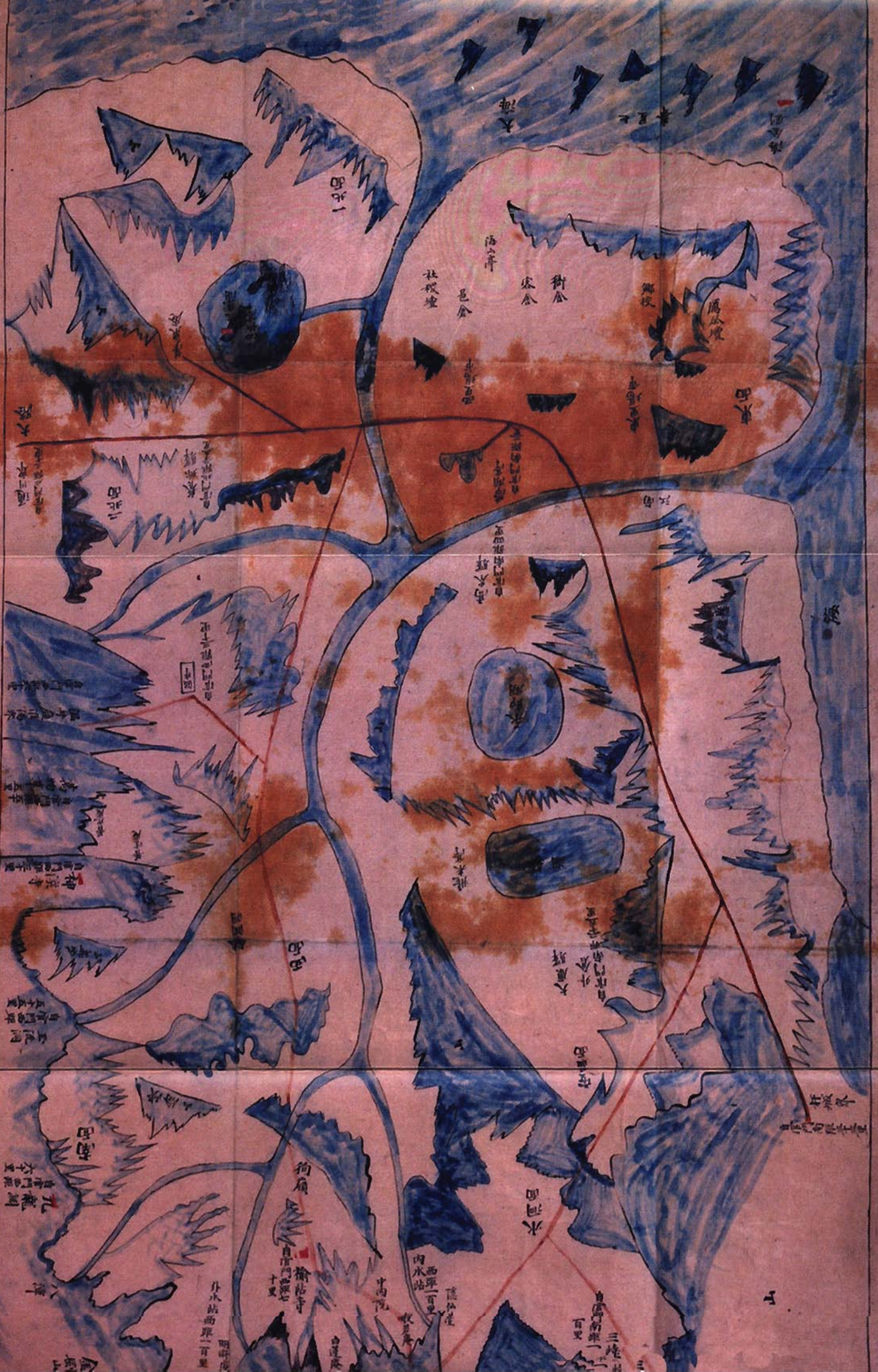
襄陽邑地圖

西

嵩岳山



高城郡地圖



高城川

東

堀山

三條

堀山

堀山

堀山

堀山

北山



西山

堀山

堀山

堀山

堀山

堀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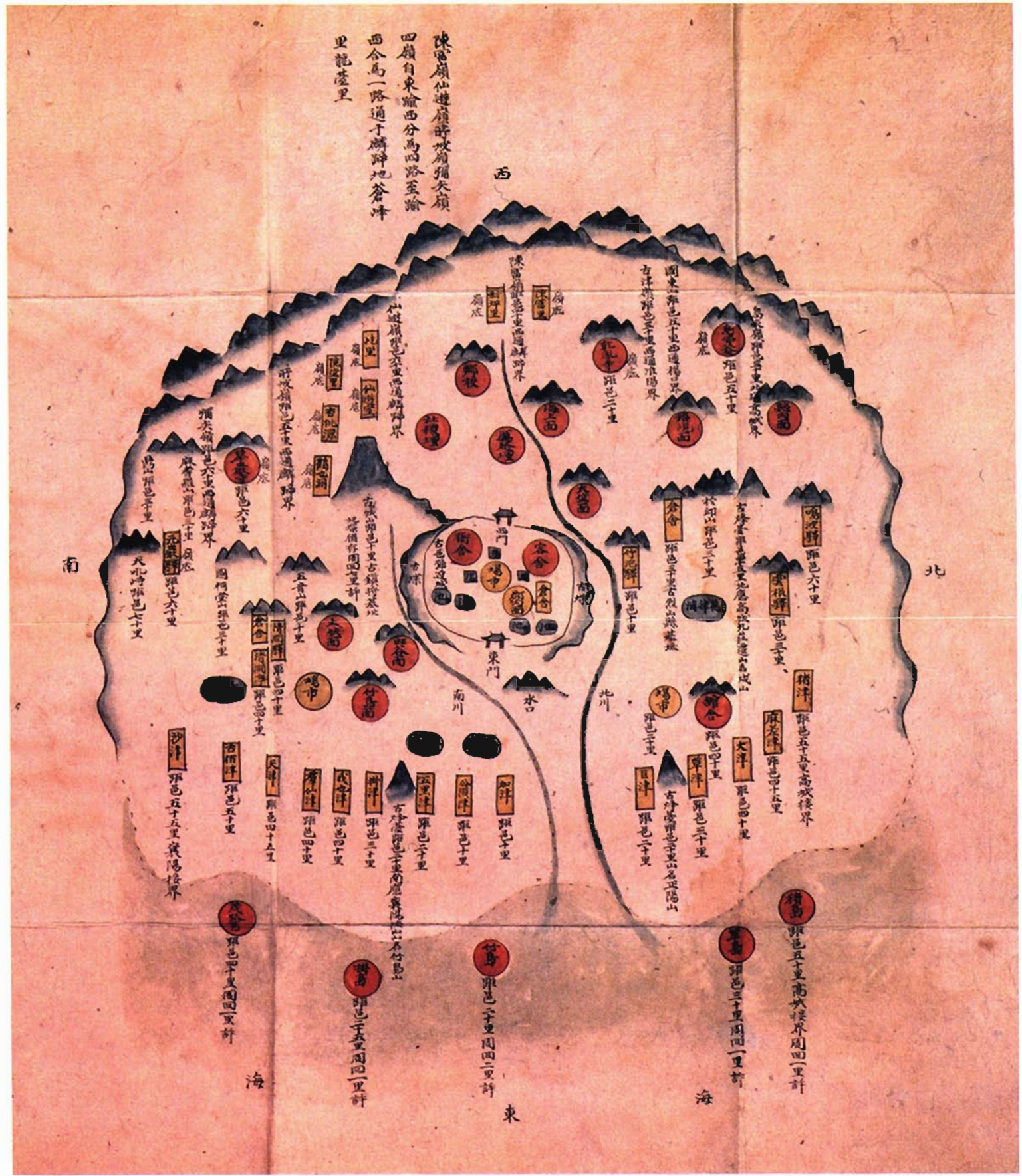
堀山

堀山

堀山

堀山

堀山



간성지도 고종9년(1872) 작자미상 / 채색도 35.1cm x 25.3cm

河原迤 地方東抵平海界六十里 西抵京畿道 南抵 北抵

原書在河原去京城三百八十里 嶺東屬邑九 嶺西屬邑十七 合二十六邑

元民戶五萬六千五百六十四戶內 男十三萬四千七百九十九名 女十三萬七千六百一十七名

元田苗三萬四千二百七十四結內 粟可萬二千九結 稻米六百三十八石 大麥百九十九石 秋米五百六十六石 柞木百千石餘

有樂各色叔布軍三千一百五十二名內 別破陣四百四十五名

軍兵控數

騎兵一千三百四十名

步兵三千四百四名

東伍軍七百四十九名

驛吏叔并八百三十七名

禁衛軍一千四百五十三名

保四十八名

保三千三百八十八名

保三千二百四十一名

逆上叔叔六百六十七名

嶺東

東大海

原溪所屬 仰安所屬 祥雲所屬 平陵所屬 山城 梓臺 廣隘



上咸鏡道

原溪

原溪

原溪

襄陽府東 城郭周回二千三百八十尺 額地

九戶二千二十五戶

三百二十三結五十二卜六束

田四百七十六結二卜七束

穀物總數 倉二庫

管付及常賑廳大小米一百七十六三斗三升一合五勺

太七百十五石三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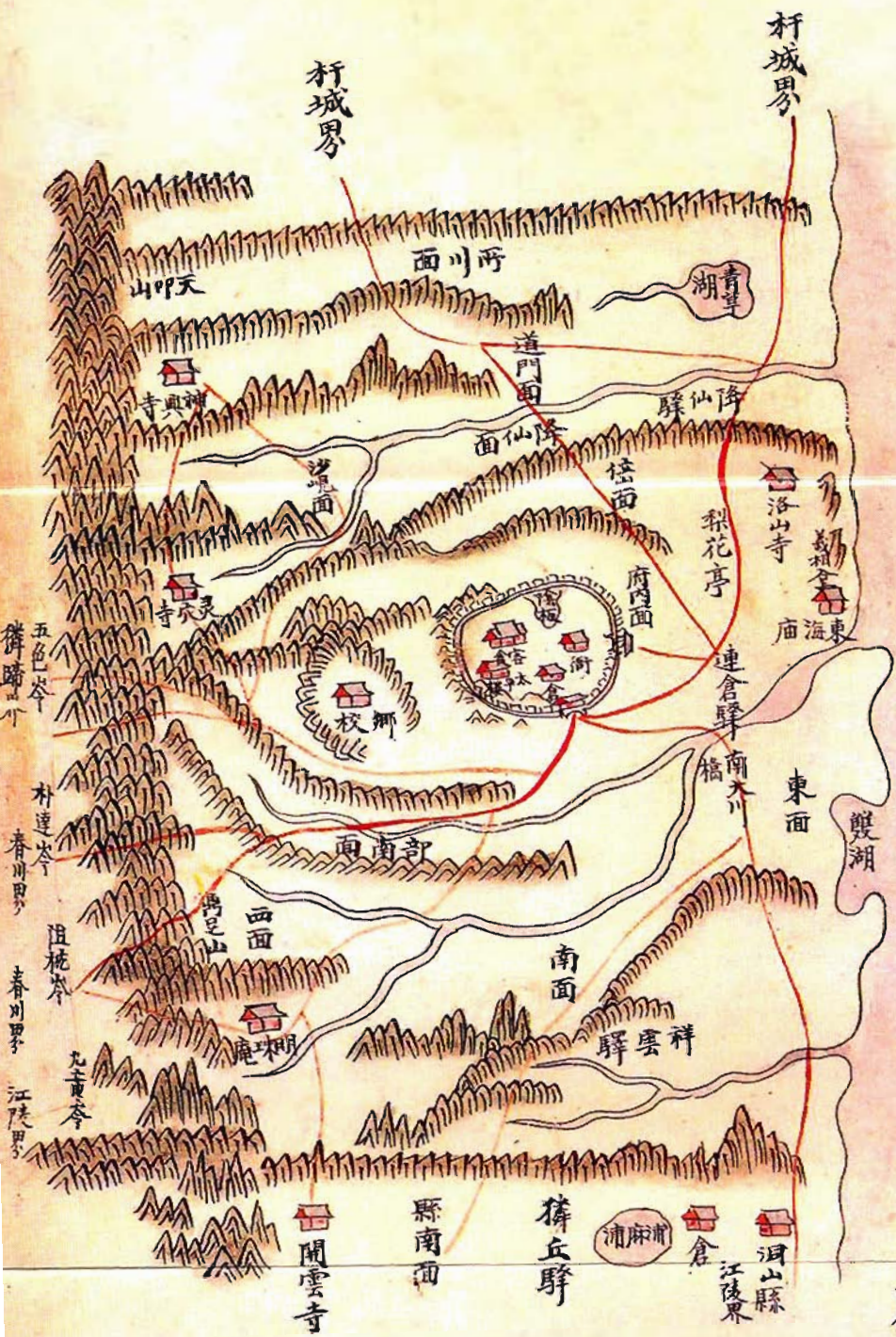
皮雜穀一萬五百九十九石五斗

單兵總數
水伍軍三百八十二名
監管軍六十四名

東距大海十里
西距 柵枕嶺 距縣一百四十里
南距 江陵界六十里
北距 柵城界三十五里
距郡九十里

府南面 初境八里 終境二十里
內面 終境二十里
位山面 初境八里 終境十三里
西面 初境五里 終境一百里
東面 初境五里 終境十五里
南面 初境十里 終境二十里
沙峴面 初境十三里 終境十七里

降仙面 初境十七里 終境二十二里
道門面 初境二十二里 終境三十三里
所川面 初境三十五里 終境三十五里
縣北面 初境三十五里 終境五十五里
縣南面 初境四十五里 終境七十里
五色嶺 柵城阻柵嶺九龍嶺此四路
中或小俱絕險通江陵之嶺西及春
等界而其餘南北大路則止



五色嶺
柵城界
村連峯
春川界
春川界
江陵界
九龍峯
鹿峯
馬兒山
阻柵峯

城郡東 城周回二百四十
步高五尺 頽圯

二千一百戶
百四十三結三十五員一束
百五十九結十一員九束

總數
常賑廳大米一千四百石二斗
八十三百八十一石六斗
又雜穀八千三百八十三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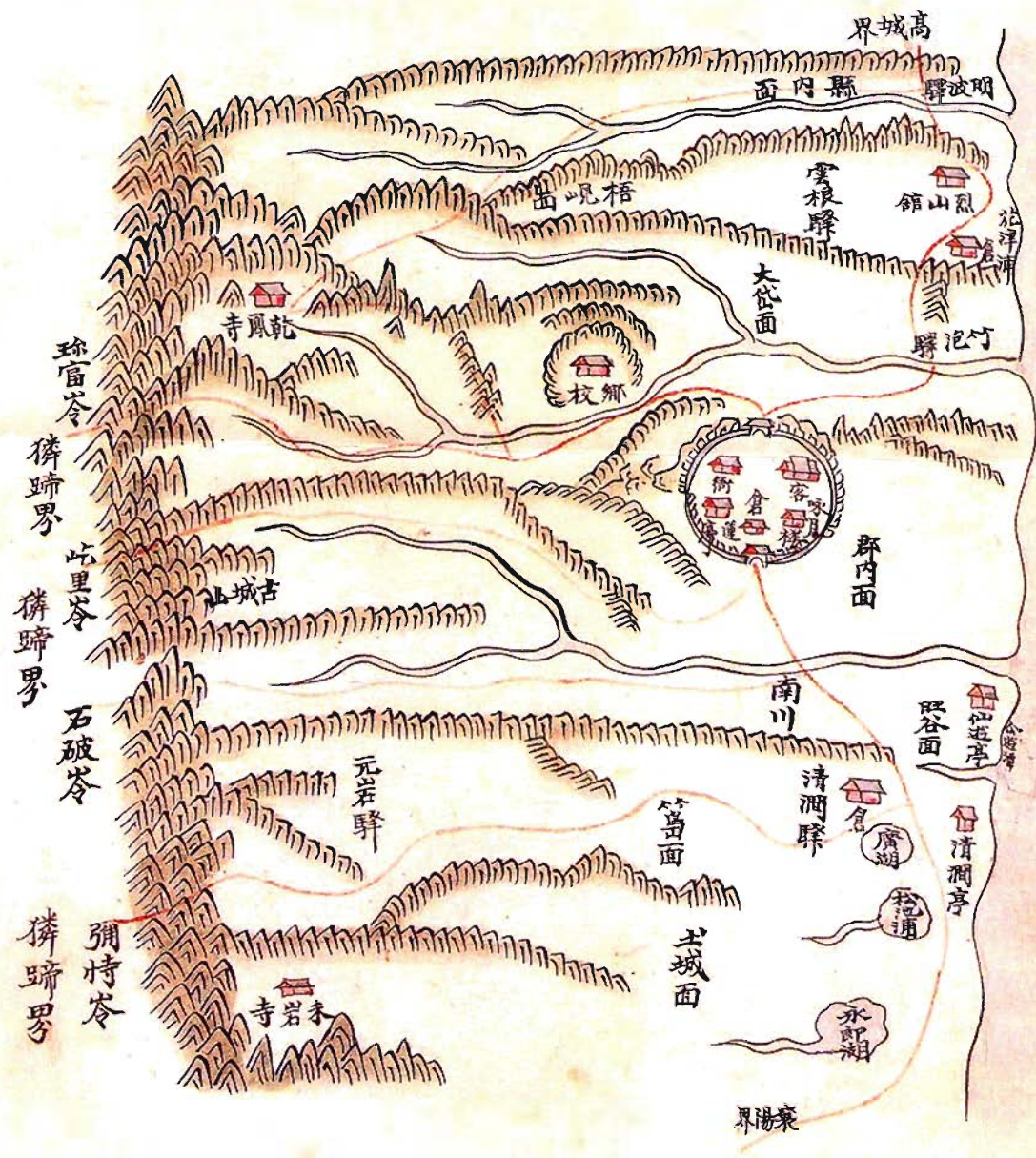
總數
軍六百六十八名

東距大海五里
南距襄陽界五十六里
府九十里
高城界六十七里
縣一百里

郡內面自官門
初竟十里
終竟十五里
竹島面初竟十里
終竟十五里
土城面初竟二十里
終竟五十六里
海上面初竟五里
終竟十里

梧峴面初竟十五里
終竟二十五里
縣內面初竟三十里
終竟六十七里

玆富嶺屹里嶺石破嶺彌特嶺此
四路或大或中或小俱絕險而道狹
蹄界其餘南北路平坦



軍六百六十八名

편집후기

속초지역의 향토사 연구에 도움을 줄 사료집을 엮어내기로 한 이후, 편집위원들은 많은 난관과 곤란 속에서 지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료 부족과 번역의 한계가 그 첫 번째 어려움이고, 자료의 해석 및 가치 여부로 연결짓는 문제가 그 다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편집위원 모두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자료의 번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번역과 분석을 위한 토론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흡하나마 하나의 사료집을 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었으며, 나름대로의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자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본격적인 향토사 연구에 일부분 도움이 되고자 꾀한 일이므로, 그 첫 출발의 자리 매김으로는 안도의 마음을 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사료집의 부족한 부분이 좀더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우리 지역 향토사 연구에 있어 사료집이 적절히 활용되어 가기를 바란다.

2001. 12.

옛 文獻속의 束草

펴낸이 / 최용문

엮은이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영준 시인, 동광농공고 교사

손병섭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양양여중 교사

김정환 동광농공고 교사

이기영 속초고 교사

정종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문화재 전문위원

한정규 향토사연구소 간사,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감 수 / 신종원 문학박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편집 및 찍은곳 / 열린마당 ☎033) 636-3636

인 쇄 / 2001년 12월 21일

발 행 / 2001년 12월 22일

주 소 /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전 화 / 033) 632-1231

팩 스 / 033) 632-1241

홈페이지 / 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 sc1241@kornet.net

不鏡成

西北拉黃海道界

永宣界

守邊界

西拉京畿界

界道清忠拉南

東南

